금주의 법구-〈화엄경〉
인간의 모든 욕망은 허무하며
물거품과 아지랑이 같고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6월 13일)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불교식 대안교육에 어린이 포교 해법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바닥을 찍은 어린이 포교가 최근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다. 학교와 학원에서 제시할 수 없는 '불교식 대안교육'을 부산 · 경남 지역 사찰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어린이 법회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다. 지난 6월까지 문화재지킴이 활동 학생을 제외한 순수 법회 참석 아동이 한 명도 없던 상황에서 7월 한 달에만 48명이 등록했다. 비결은 통도사가 새롭게 시작한 '숲 체험 명상 놀이'다.

통도사는 지난 1월 동국대 경주캠퍼스 숲예술창의력사업단과 '숲 체험 명상 놀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많은 아이들이 찾기 시작했다.

'숲 체험 명상 놀이'는 숲에서 놀며 감각을 깨우고 자연에서 체험한 결과를 미술, 연극, 글짓기 등 예술 활동으로 풀어내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체 놀이를 진행해 다른 이와 하나 되는 법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고 있다.

범어사도 어린이법회에 활기를 띠고 있다. 범어사는 지난 4월 보제루에서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위해 부산외국어대와 연계해 인도인과 함께 떠나는 인도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영춘권 등 신체 단련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앞으로 범어사 경내에서 숲 체험 및 탐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어사는 프로그램 시작 후 2개월 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두 배 이상 늘어나 30여 명이 참가하며, 아울러 저학년은 평균 15명이 참가하고 있다. 저학년 전문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동명대에서 전문 교사를 영입했으며 새롭게 맞춤식 프로그램도 계획 중이다.

부산 도심에 있는 사찰에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해 합창과 스포츠를 이용해 효과를 얻고 있다.

대원사(주지 담화림)는 대원선재합창단을 2015년 12월 창단해 이후 50여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후 대원사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활동을 확장하고 부산 어린이 포교 성공 사례가 됐다.

아울러 2017년에 4개 사찰이 합심해 처음으로 열린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는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부산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등 어린이 합창단 참여 사찰이 늘어났고 500여 명의 어린이와 200여 명의 자모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 스포츠 포교도 또 다른 포교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 원오사를 비롯해 안국선원 교육관과 불국토청소년도량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이미 축구단을 운영 중이며 미타선원, 김해 바라밀선원, 홍법사도 어린이 축구단 결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사찰들이 보여주는 대안교육 · 문화 프로그램이 학부모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찾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초등학교 4학년 신영록 군의 어머니 허수일 씨는 "아들이 외향적이라 밝은 성격인데 학교 공간에서는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경쟁구도에 놓여 항상 안타까웠다"며 "그래서 자주 숲을 찾고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안타까웠다. 통도사 프로그램을 보고 바로 등록할 정도로 반가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찰들의 포교 프로그램들이 인기몰이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으로 얻은 신뢰'와 '아동 눈높이에 맞춘 행복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과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산불교, 어린이 포교 새 지평

통도사 · 범어사, 전문기관 연계
어린이 법회 운영해 '인기몰이'
부산불교 어린이 합창단 열풍
대안교육 통해 인성 함양 효과
지역 학부모 · 학생 호응도 높아
계층 포교 침체 극복할 롤모델

이수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는 "불교의 공동체 생활과 생명존중 사상은 미래 교육의 지향점"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프로그램에 녹인 전문기관을 찾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큰 과제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면서 "지속성을 위해 전문 담당 스님 혹은 어린이 담당 활동가를 두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미선 (사)동련 사무국장은 "부산 어린이 법회 성장은 무엇보다 문화로 기존 법회의 틀을 깨고 새롭게 접근한 노력의 결과"라며 "높은 교육의 질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은 기존 숲 활동으로론 만족이 어렵다.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기존 국립공원 활동과 연계해 불교와 접목을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국장은 "환경과 인성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대에 맞는 사찰 환경 여건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해서…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단장 박희승)과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7월 14~21일 미국 뉴욕과 LA지역의 명상센터 답사를 실시했다. 답사단은 세계 유수의 명상센터를 체험하며, 문경 봉암사 인근에 들어설 문경세계명상마을의 청사진을 그렸다. 사진은 7월 15일 뉴욕 젠마운틴명상센터에서 답사단이 명상하는 모습이다. 사진왼쪽 첫번째 용문사 평정 스님, 두번째 박희승 단장, 사진오른쪽 첫번째 권기섭 문경시 부시장, 두번째 김준태 경북뉴욕주재관이다. **뉴욕 젠마운틴명상센터= 노덕현 기자**

대만 자제공덕회 만해평화대상 수상

만해축전추진위 16일 수상자 발표
실천대상 조병국 홀트병원 명예원장
문예대상 최승범 · 부르스 풀턴 교수
오는 인제서 8월 12일 시상식 개최


증엄 스님


조병국 원장


최승범 교수


부르스 풀턴 교수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 구호기구인 '자제공덕회'가 올해 만해대상 평화대상을 수상한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관제 · 동국대 대외부총장)는 "'제22회 만해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올해 평화대상은 대만 불교단체이자 민간 구호 · 봉사기구인 '자제공덕회'가 수상하며, 실천대상은 조병국 홀트아동병원 명예원장이 받게 됐다. 문예대상은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와 부르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자제공덕회는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봉사 · 자선 · 의료 ·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다. 현재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자선과 구호활동 중이며, 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활동한 사람만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에 이른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조병국 원장은 6만 명이 넘는 '버려진 아이들'의 주치의로 반세기 넘게 봉사해왔다. 현재 85세의 고령이지만 지금도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아들을 진료하고 있다.

문예대상 공동수상자인 최승범 전북대 명예교수는 1969년 발간한 〈전북문학〉 등을 통해 평생 향토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부르스 풀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수는 150여 편의 한국소설을 번역해 출간했다. 170여 회에 걸쳐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한국 소설 낭독회를 여는 등 한국 문학을 영미권에 널리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 인물이다.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분야에서 전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선정 · 시상하는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前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前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퇴거 前 소록도 간호사, 고은 시인, 조정래 소설가, 모옌 노벨문학상 수상자 등이 있다.

한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뜻을 기리는 만해축전은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다. 축전에는 유심작품상 시상을 비롯해 만해 74주기 추모행사, 학술행사, 문화예술 행사 및 경연대회, 지역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오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박동춘 소장 고려 단차 복원 · 시연 특강 A5 | 시코쿠를 걷다 – ② 순례의 첫 걸음 A8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캠페인
기원정사처럼 성역화불사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보시하기 위해 금화로 땅을 덮었던 수닷타 장자처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땅 한 평을 동전으로 덮어주세요.
당신도 수닷타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참 금 : 60만원 (100원 동전으로 땅 한 평을 덮기 위한 금액)
■ 동참문의 : 02-730-6690 / www.buddhism.or.kr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와 총무원 일대의 땅을 매입하여
한국불교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재정비하는 대작불사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

용주사 주지후보에 성법 스님

7월 17일, 유력후보 성월 스님 사퇴로 무투표 당선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후보에 前만의사 주지 성법 스님이 선출됐다. 유력후보인 현 주지 성월 스님이 산중총회 전날 사퇴함에 따라 성법 스님이 주지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것.

용주사는 7월 17일 경내 관음전에서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후보로 성법 스님을 선출했다. 임기는 8월 28일부터다. 산중총회에는 구성원 195명 중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법 스님의 당선 확정 직후 당선증을 전달했다.

성법 스님은 "최선을 다해서 교구가 원만하게 잘 이뤄질 수 있노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성법 스님은 정오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용주사서 정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876년 법주사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염불사와 만의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유력후보였던 성월 스님은 16일 후보 사퇴의사를 밝힌 뒤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다. 이 글에서 성월 스님은 "용주사 주지에 당선된 이후 저의 개인 신상을 두고 여러 억측과 비난이 난무했다. 사실이 아님을



주지후보로 당선된 성법 스님.
사진제공=제주불교신문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음에도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렸다"며 "의혹이 제기될 당시 사실 여부를 떠나 종단과 교구본사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결심을 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교구본사주지가 사퇴하면 앞으로 종단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스스로 의혹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변 만류가 많았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산중총회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자격심사를 통해 저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더 이상 종단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제 모든 시비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천일용맹정진, 종단혁신 가능할까

조계종 교권자주위원회 전체회의서 혁신안 검토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종단 대표자들을 향한 범계의혹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서 종단 안팎에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혹규명을 위해 구성된 교권자주위원회가 불교적 방식의 종단혁신안을 검토, 총무원에 제안했다.

조계종 교권자주 및 수호위원회(위원장 밀운)는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인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종단혁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단혁신안은 장기적 혁신안과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혁신안으로 구분된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종단 차원에서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으며, 회의서는 기조와 취지를 중심으로 설명한 뒤 의결해 총무원에 제안했다.

제안자인 혁신위원장 도법 스님에 따르면 총괄적인 혁신안의 이름은 '천일용맹정진'이다. 이 안에서 장·단기적 대안을 모색하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위한 순례 등이 장기적 움직임으로 제시됐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설정 스님 의혹 규명에 최선 △승가공동체의 참회와 근본대책 마련 △종단혁신 원탁회의 구성 △종단 내부문제 해결에 화쟁방식으로 전환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법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대로 종단을 혁신하려면 적어도 천일의 시간은 염두에 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해 제안했다. 이와 함께 평화를 위한 움직임에서 천일순례 같은 동적인 성찰과 반성을 장기적으로 시행하고, 당면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제안일 뿐 총무원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과거의 아쉬운 모습이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천일용맹정진' 총무원에 제안
과거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심
장·단기적 대안 등 담았지만
시행 여부에 부정적 시각 있어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 교권자주위원회 전체회의. 이날 전체회의서 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종단혁신안'이 의결됐다.

교권자주위원회가 총무원에 제안한 혁신안은 과거 종단쇄신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시행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종단쇄신위원회 당시 혁신안은 자료집으로만 제작됐을 뿐 현장에서 시행되진 않았다. 실제 이날 회의서도 도법 스님이 설명한 혁신안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는 없었다.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의결됐다.

교권자주위원회는 이외에 지난달 이뤄진 종령 개정에 따른 추가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으로 명예원로 명선 스님, 원로의원 일면 스님을 위촉했으며, 현 집행부에 비판적 입장을 표한 중진급 인사들을 위원으로 섭외하도록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은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에서 활동 중인 현진 스님을 추천했으나 당사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회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교권자주위원회는 그간 이뤄진 각 소위원회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모친인 김○정 씨가 방한 예정이어서 면담을 하기로 했으며, 7월 25일 불국사·은해사·직지사를 방문해 PD수첩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구본사주지協 "종단 안정 시급"

전주 수현사서 57차 회의… 빠른 결과도출 주문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빠른 시일 내 종단안팎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종단 안정을 되찾을 것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우, 금산사 주지)는 7월 19일 전주 혁신도시 금산사 전법도량 수현사 회의실서 제57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구본사주지 17명이 참석한 회의서는 종단현안 보고와 관련해 총무부가 교권자주 및 수호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이 자리서 총무부는 MBC PD수첩 방송에 항의하는 현수막 등을 전국 사찰 200여 곳에 게시하고, 종단사찰토지에 설치된 MBC송신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우려를 표한 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교권자주위원회가 일정을 앞당겨 빨리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총무부는 빠른 시일 내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어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최근 제주 예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불교계가 활동하는 데 협의회가 관심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허운 스님은 "예멘 난민 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직 초기단계"라며 "최소 체류기간 동안 거주지 임대료를 비롯해 각종 생필품과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정학 총무원 사회부 팀장은 "난민을 인도적으로 보호하고 시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난민 숙소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중앙신도회가 행복바라미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자선골프대회와 군종특별교구의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또한 58차 회의는 9월 28일 은해사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종무원장, 집행부 의혹 해명 촉구

대전서 종단발전회의 개최
7월 18일, 종단 정상화 기원

공금 유용 등 중앙종회 감사에
종단 집행부 조속한 해결 요구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가 7월 18일 대전서 모여 종단에 제기된 의혹 해명에 총무원 집행부가 나설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 종단 안팎으로 현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종무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행부에 제기된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태고종 전국종무원장협의회(회장 법성, 경남종무원장)는 7월 18일 대전 대림호텔 2층 회의실서 '5차 전국종무원장협의회 종단발전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특별감사위원회가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종무원장들과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 수석부의장 시각 스님, 종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서 특별감사위원장 법담 스님은 4가지 사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태고종 현 집행부에 제기된 대표적 의혹은 2013년 폭력사태 당시 비대위 소속이었던 우혜공 스님에게 최근 지급된 2억 원의 출처다. 아울러 △천중사 관련 신모 씨 및 청년회장에게 지급된 3억1000만원 △울산 용암사 건물매입 및 입출금 확인 △영평사 관련 공문서 위조와 삼보정재 유실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중앙종회의장 도광 스님은 "특별감사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중앙종회에 보고하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서는 이뿐만 아니라 멸빈자들의 소송 및 화해권고에 대한 총무원의 무대응 건, 승가위계 및 종도탄압의 건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이어 전국종무원장협의회는 앞서 제기된 의혹과 총무원 차원의 대응 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종회가 종헌종법에 근거해 투명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조동제 전북지사장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8월 16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27일까지며, 희망자는 민추본 정기 후원회원 가입선청서와 입학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 공지하며, 8월 6일까지 수강료를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강료는 1인 70만원(순례비용 포함).

교육과정은 8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된다. 실내강좌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 매주 목요일 진행되며,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순례는 9월 15~18일 예정돼 있다.

교육과정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그 실현가능성과 과제(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 △통일의 시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해(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02)720-0531

윤호섭 기자



조계종과 협의없는 공원법 개정 '논란'

입법예고 8월 12일까지, 조계종 입장정리 나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으나 국·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협의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12일 전까지 종단입장을 전달해 반영되도록 추진 중이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덕문)'는 7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의 중점사항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해 환경부에 제안키로 했다.

입법예고된 전부개정안은 국립·도립·군립공원 구분 없이 규정된 편제를 공원관리 주체별로 나누는 등 조문체계를 재편, 86개 조문을 109개로 세분화했다. 또한 '자연공원법 목적'에 현재·미래세대가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구분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 및 경관 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찰토지 비중 상당함에도
정부로부터 연락도 못받아
교구본사들도 날세워 비판
"공원 개념부터 재정립을"

하지만 조계종은 이 같은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에 불쾌함을 표현했다. 국·도립공원에서 사찰토지의 비중이 상당한데다 대가없이 공원으로 편입된 만큼 환경부와의 사전협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 중 사찰지는 약 279㎢인 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사찰지 비중이 큰 만큼 국립공원 통계서도 국유지·공유지·사유지·사찰지로 나눠 구분하고 있다.


조계종 '공원 및 문화재 관련 정책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종단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조계종은 '공원'이라는 용어 개념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국립공원'이라는 표현이 자칫 모든 토지가 100% 국공유지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통사찰과 일반사유지 소유자가 공원지역에 대해 갖는 다양한 권리·재정지원책의 명문화를 주장했다. 이는 사유지 권리가 보장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견해에 '문화경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전통사찰보존지 사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은 당해사찰 주지 및 그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안키로 했다.

개정안에 공원구역을 점용·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요금 납부의무가 명시된 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기관이 사유지를 점용·사용할 시에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덕문 스님은 "조계종 사찰토지의 3분의 2가 국립공원에 편입돼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부터 해놓고 종단에 검토해달라는 건 무례"라고 꼬집은 뒤 "이달 안에 종단 입장을 정리해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논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7월 19일 제57차 회의서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향후 입장문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2018 상반기 세종도서 불교 관련 6종 선정

정운 스님의 〈그대와 나,…〉 등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에 불교관련 서적 6종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7월 8일 심사를 통해 선별한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작 220종을 발표했다.

종교부문에 선정된 불교 관련 서적은 △그대와 나, 참 좋은 인연입니다(정운 스님, 담앤북스) △다비: 위빠사나 수행기(정해심, 에디터) △담마빠다: 고려가사·한문 빠알리어로 읽는 게송과 배경담(현진 스님, 조계종출판사) △마음 다루기 수업: 혜안 스님의 삶을 바꾸는 명상이야기(혜안 스님, 싱긋) △불교는 왜 그래?: 불교가 궁금한 이들에게 전하는 속 시원한 해답 33(장웅연 글, 최밈밈 그림, 담앤북스)이다.

또 동국대대학원에서 '불교의 업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영석 가톨릭 신부의 △예수처럼 부처처럼: 성경과 무문관의 우연한 만남(이영석, 성바오로)도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불교복지도 변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래복지포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정책을 반영한 불교복지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범적인 사회서비스원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사회서비스원과 불교사회복지의 방향'을 주제로 '제74회 미래복지포럼'을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개최했다.

충분한 논의·보완 거친 뒤
불교계 성과 이어지게 해야

사회서비스원 정책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질적 관리나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대두됐다. 사회서비스원의 범위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에 따라 불교사회복지도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학과)가 맡았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포럼 등 다양한 정책에 참여한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진행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정리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호영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공상길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등은 종교계 사회복지 및 현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들은 "공공성과 전문성, 획일성과 자율성 등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쳐 민간 영역부터 시작된 불교계 사회복지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출가, 가장 빛나는 선택입니다

조계종, 하반기 출가 안내 시작

매 6·12월 집중안내기간 맞아

출가 포스터·동영상 제작 배포

조계종이 올해 하반기 출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7월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를 캐치프레이즈로 2018년도 하반기 출가 안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가 절벽 시대' 대응책으로 조계종 교육원은 매년 6월, 12월을 출가 집중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출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는 하반기 집중등록기간으로 이 기간에 등록하면 행자생활을 거쳐 내년 3월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게 된다. 출가 대상은 만13~50세(1969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출가 홍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포스터 2종과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교구본사와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특히 동영상 제작 홍보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진흥을 위해 새롭게 제작한 출가포스터.

BTN불교TV를 통해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1달간 오전 10시 30분에 방영된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출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조계종 교육원(02-2011-1801)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인 출가상담은 출가상담전화(1666-7987)로 전화해 출가상담사 스님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 조계종 출가사이트(monk.buddhism.or.kr)에서도 출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동국대, 중앙승가대에 포스터를 배포했고, 동영상도 각 본사와 기관 홈페이지에서 게재토록 요청했다"면서 "하반기에는 각 본사 출가지도법사 스님들을 교육해 일선 현장에서 출가를 독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출가 스님에게는 필요한 주거·교육·의료 등 일체 혜택과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입원진료비·요양비 등이 지원된다.

소년출가자, 청년출가자의 경우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입학 시 등록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대학원 진학 시 장학지원, 군승 지원 시 특별 선발한다. 특히 소년출가자는 6개월간의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에서 배우는 청소년 '생명존중'

생명나눔,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아동센터 2곳과 용인 법륜사서 '찾아가는 지역아동센터 교육 및 나를 위한 여행 법륜사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행사는 구립수락지역아동센터와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서 생명존중에 대한 인성교육을 들은 뒤, 법륜사 자살예방 템플스테이 체험으로 이어지며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 및 템플스테이에는 진행요원, 생명을 지키는 의대생 자살예방동아리 '따숨',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와 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먼저 각 지역아동센터 별 인성교육 4회를 들은 뒤, 법륜사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 및 템플스테이는 각 지역아동센터서 4일, 법륜사서 1박2일 동안 이어진다. 인성교육 일정은 구립수락지역아동센터 7월 27일~8월 1일,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 8월 6~9일이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일정은 각각 8월 2~3일, 8월 13~14일이다. (02)734-8050

김지원 수습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으신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102권째 서적 출간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
화엄경
81권 중 26권 출간
출간 불사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무료 전자책
〈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5252-3603 〉

SUMMER ZEN RETREAT
여름 禪
장소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원
일정 2018.08.11(토)-2018.08.15(수) 4박5일
교재 바로보인 도가귀감
정맥선원 정기수련회
수련회
심지법문/참선/명상요가/발우공양
준비물 : 세면도구, 작은 담요(방석 1-2장 배분), 겉옷준비 (밤에 추움), 긴바지(반바지 삼가함)
참가비 : 4박5일, 3박4일 (1인 100,000원 / 2인 이상 가족시 1인당 80,000원, 어린이 50,000원)
2박3일, 1박2일 (1인 60,000원 / 2인 이상 가족시 1인당 50,000원, 어린이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55-0021-9977-03 성불사 / 문의 : 법심스님 010-8670-1445

장학퀴즈로 새 옷 입은 나란다축제

제10회 나란다축제, 9월 8~9일 동국대서 개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통문화 계승 ·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나란다축제가 10회째를 맞아 '장학퀴즈'라는 새 옷을 입어 눈길을 끈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주최하는 제10회 나란다축제는 9월 8~9일 동국대와 전국 군법당에서, 10월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다. 특히 10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나란다 장학퀴즈가 신설돼 학교 · 사찰 · 군부대를 대표한 참가자들이 각 단체의 명예를 걸고 지식대결에 나설 전망이다.

나란다 장학퀴즈는 9월 8일 동국대 본관 중강당서 고등학생부문과 군장병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고등학생부문은 학교 또는 사찰별로 대표 2인을 선정해 참가하며,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시사 · 상식 문제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행사장 규모가 제한적인 관계로 접수자가 많을 시 별도의 예선이 치러진다. 결선에는 총 8팀(16명)만이 진출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포교원장상과 장학금 100만원, 우수상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상과 장학금 50만원이 수여된다. 긴장감 넘치는 퀴즈대결뿐만 아니라 각 학교 또는 사찰별 열띤 응원전도 예상된다. 또한 군장병부문은 참가자가 고등학생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군단별 대항전으로 치러진다. 시상내역은 고등학생부문과 같다.

학교 · 사찰 대표 2인 참가
불교교리 · 시사상식 대결
각종 상장과 장학금 수여
군장병 위한 대회도 마련

나란다축제의 모태가 된 불교교리 경시대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동국대) · 대전(보문중) · 대구(능인중) · 부산(금정중) · 영천(선화여고) · 제주(예정) 전국 각지서 중 · 고등부 대회가, 9일 오전 11시 전국 군법당서 군장병 대회가 진행된다.



TV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을 본떠 만든 '도전! 범종을 울려라'는 사찰별 예선통과자들을 대상으로 8일 오후 2시 동국대 금강관서 펼쳐진다. 총 참가인원의 10%를 선발해 퀴즈대회를 실시하며, 올해 처음으로 결선 점수 합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상권내 인원이 남았을 때 점수 합산제로 전환, 문제 난이도별 차등 점수를 부여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사관생도만을 위한 '도전! 범종을 울려라'도 진행된다. 대회는 국군의날 이후인 10월 6일 오후 1시 충남 계룡대서 열린다.

청소년 신행활동을 증진하고, 우리말 경전 읽기 확산을 위한 '우리말 독송대회'는 8일 오후 3시 동국대 만해광장서 개최된다. 중 · 고등학생 또는 이에 준한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형식과 독송 주제를 자유 선택해 5분간 선보이면 된다. 대상팀에는 총무원장상과 장학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전통문화 체험마당 △회향 한마당 △붓다야! 놀자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등이 행사장 일대에서 펼쳐지며, 각종 프로그램은 인터넷 생중계된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효 스님은 7월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서 "'be the buddha'라는 주제로 시작된 나란다축제가 어느새 10회째를 맞았다. 매년 행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국불교의 핵심가치를 전할지 고민하며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는 나란다축제가 대형행사로 자리 잡고, 개념이 정립되는 모습이다.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면 2차 계획을 잘 세우고,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산 스님 49재… "그립지만 늘 우리 곁에…"

7월 13일 신흥사서 막재
1000여 대중 모여 추모

일생을 중생구제 원력 실천에 바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스님의 49재 막재가 신흥사 설법전서 마무리됐다. 막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과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등 스님들을 비롯해 이수성 前국무총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등 정계 인사, 이근배 · 신달자 시인 등 문인까지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산 스님 49재는 6월 1일 신흥사서 봉행한 초재를 시작으로, 인제 백담사, 양양 낙산사, 인제 만해마을, 양양 진전사, 고성 건봉사를 거쳐 다시 신흥사로 돌아와 막재를 치렀다. 막재는 법당서 망혼을 맞이하는 대령(對靈) 이후 참여대중 헌다, 반야심경 봉독, 추도법문, 추도시 낭독(병석 스님), 생전 육성법문 청취, 인사말, 소대(燒臺)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이 무산 스님 영전에 헌다하는 모습. 무산 스님의 평생 지음(知音)이자 호상을 맡은 정휴 스님도 함께했다. 사진=윤호섭 기자

이 자리서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추도법문을 통해 "올 때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갈 때도 당처(當處)는 공적(空寂)하고 의연하여 자취가 없으니 어찌 나고 죽고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라며 "가던 날에는 천산만수(千山萬水)의 산빛 물빛을 거두어 갔고 오늘은 만견청산(滿見靑山)에 두견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네"라고 설했다.

이어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인사말서 "다비식 봉행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막재를 올리게 됐다. 그동안 먼 곳까지 찾아주신 제방 · 대덕 · 문중 스님들과 인연 귀중하신 대중의 발원과 기도로 조실 스님께서도 편안한 적멸에 드셨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큰스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침과 공덕을 받들어가겠다"고 행사에 참석한 대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하화중생의 실천'을 강조한 무산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은 막재에 참석한 대중에게 다시 한 번 울림을 남겼다. 무산 스님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에는 깨달음 얻은 선승들은 많은데 깨달음의 삶을 사는 선승들은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부처가 되어 무엇합니까?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대중이 중생구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막재가 끝난 뒤 만해축전 초대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수성 前국무총리는 "예나 지금, 내일 할 것 없이 마음속에 같이 계시기에 슬프거나 안타깝기보다는 늘 그리울 것"이라고 무산 스님을 추모했다. 이어 "최대 현안인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 남북이 함께 평안하고 번영하는 것이 곧 큰스님이 항상 바라셨던 일"이라며 "그분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들은 무산 스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홍성란 시조시인은 무산 스님을 떠올리면 늘 '행복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무산 스님은 중생의 마음으론 헤아릴 수 없었던 분이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며 "어제 명부전에 모신 큰스님 영전 앞에서 다른 동료 시인들과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때의 기억은 등 황빛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행복한 분위기로, 늘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속초 신흥사=김지원 수습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 ⑫

장선정 호스피스협회 대구지부 간사

"삶의 끝자락서 희망 씨앗 발견"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있는 장 씨(사진 오른쪽)와 동료.

장선정 씨의 하루는 고단하다. 오랜 암투병 끝에 치매까지 생긴 시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2009년 서울대 병원에서 그녀는 시아버지가 전립선암이란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지난 2010년 시아버지는 다시 대장으로 암이 전이됐고, 수술을 해야 했다.

1998년부터 대구 영남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현회에서 활동해 온 그녀는 사경을 헤메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죽음 앞에서 존재의 가치를 다시 살피는 일에 뛰어 들고자 했다. 그래서 2011년 마하보디교육원의 불교 호스피스 33기를 나오고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했다.

"기력이 쇠해지시면 치매도 옵니다. 암에 치매가 오신 아버님을 도저히 집에서만 보살필 수는 없어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아버님을 보살피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시아버지 곁이 아닌 다른 중환자들 사이를 누볐다.

"아무래도 아픈 가족이 있다보니 저희 가족 같았습니다. 죽음은 외롭죠.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데, 혼자서는 존엄하지 않아요. 옆에 누가 있어야죠."

장 씨는 봉사를 하러 가기 전에 대구 무광산사에서 기도를 한다. 성철스님의 마지막 상좌인 원구 스님이 그녀에게 맞는 기도를 정해줬다. 참선과 함께 자기성찰이 중심이 된다.

"아무래도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되면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며 마음이 트여요.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마음 치유가 필요하죠. 협회에서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도와 함께 큰 도움이 됩니다."

장 씨의 양가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다. 앞서 치매까지 온 시아버지는 91세의 나이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편찮은 상황이지만 그녀는 틈을 내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희 가족만 아픈 것은 아니잖아요. 아픈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밥 한 끼 드리는 것만으로도 힘을 넣어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호스피스 봉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 · 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

잊혀진 '천년의 香·味' 고려 단차를 복원하다

박동춘 소장, 17일 고려 단차 복원 · 시연 특강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고려시대는 불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차 문화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이 즐겼던 차는 바로 단차(團茶)입니다. 이는 매우 섬세하고 감미로운 색과 향, 맛을 가진 극품의 차입니다. 우리는 단차 복원을 통해 고려인들이 지향한 문화의 격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7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려시대 단차의 특징'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고려 단차를 설명했다.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문화행사 일환으로 열린 특강에서 박 소장은 현재는 단절된 고려 단차를 복원 ·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고려 단차 복원은 박 소장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그는 고려 단차의 문헌적 근거를 〈고려사〉, 〈동문선〉, 〈동국이상국전집〉 등 우리나라 문헌에서 찾았고, 단차 제다법은 〈다경〉, 〈대관다론〉, 〈다록〉, 〈북원별록〉 등 중국 측 문헌을 토대로 연구해 복원했다.

이날 박 소장은 고려 단차의 복원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찻잎 따기부터 △찻잎 고르기 △시루에 찌기 △식히기 △고(膏) 짜기 △돌절구에 찧기 △청자 다연에 갈기 △틀에 넣고 찍어내기 △무쇠가마솥에서 건조 △온돌 건조로 이어지는 제다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섬세한 공정이었다.

찻잎은 창처럼 뾰족한 '일창(一槍)' 형태의 것을 선별하며, 이 중에서도 묵은 잎이나 줄기 등은 별도로 골라낸다. 엄선된 찻잎들은 바로 시루에 넣고 찐다. 산화로 인해 차의 맛과 색이 탁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은 신속히 진행된다.

박 소장은 "신선한 찻잎으로 단차를 만들기 위해 바로 차 만들기에 들어가야 한다"며 "신선함과 신속함은 단차 공정에서 가장 유의해야할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루에 넣고 찔 때도 그냥 찌지 않는다. 대발을 만들고 그 위에 모시나 삼베를 깔고 찻잎을 찐다. 어느 정도 익으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섞어주고 차향이 나기 시작하면 꺼내서 찻잎을 식혀준다. 식힌 찻잎은 무거운 돌을 얹혀 '고 짜기'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거쳐야 찻잎에 있는 탁한 엽록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고를 짜낸 찻잎은 돌절구에 찧고, 청자 다연에 갈아 가루로 만든다.

가루형태가 된 찻잎은 틀에 넣고 압축해 모양을 내고 이후에는 무쇠가마솥과 온돌에서 건조 과정을 거친다.

박 소장은 "무쇠가마솥에서 건조할 때는 대나무 잔가지 등을 태워 80℃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며 "온돌에 한 번 더 건조하는 것은 내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 융성하며 茶도 발달

국왕 직접 차 제작, 불단 공양

가루차인 '단차'가 주류를 이뤄

찌고 갈고 말리고 정성 집약돼

탕법, 가루 내 茶 우리는 점다법

"고려청자 같은 은은함이 일품"

이렇게 만들어진 고려 단차는 시음하기까지도 적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고형된 단차를 불에 굽는다. 절대 타면 안 되고 약한 불에 오래 여러 번 익혀야 한다. 구운 차는 나무 절구에 넣고 깨고 맷돌에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은 〈동국이상국집〉 등에서 문헌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려시대 명문장가인 이규보(1168~1241)는 '공이로 녹태차를 깨자 시냇가에서 졸던 숫놈 오리가 놀라서 깨네', '돌 쪼아 차 맷돌을 만들어 차 맷돌 돌리랴 어깨가 괴롭다' 등을 한시를 통해 생활상을 기록했다.

절구와 맷돌로 갈아낸 차는 비단으로 차 가루를 내는 과정까지 거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고운 차 가루는 다도 탕법 중 하나인 '점다법(點茶法)'으로 한잔의 차로 태어난다. 차 가루에 뜨거운 물을 붓고 다선(茶筅, 가루차를 물에 풀리도록 젓는 도구)으로 격불(擊拂, 다선을 빠르게 움직여 거품을 내는 것)해 차를 내는 것이 고려인들이 즐겼던 방식이었다.

재현한 고려 단차에 대해 박 소장은 "단차는 고려시대의 아름다운 차 문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중국에서 전해진 외래문화였지만, 11세기 이후에는 고려적 색채를 완전히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려시대 차 문화가 융성할 수 있던 점에 대해서는 '불교'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국왕이 직접 찻잎을 갈아 차를 만들어 불단에 공양한 '공덕재'의 기록이 나올 정도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가 제도화 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불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사찰 경제가 발전했고, 차를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한 선종이 활발해지면서 차 문화 융성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왕실 귀족과 관료 문인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정신음료로서 차를 음용케 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새로 복원된 고려 단차의 시연과 시음도 이뤄졌다. 단차의 시음한 참가자들은 고려 천년의 차향과 맛에 감탄했다.

조희선 성균관대 다도대학원 교수는 "차를 마시는 순간 고려청자와 같은 은은하고 고귀한 빛깔이 가장 먼저 연상됐다"면서 "기계를 간 것과 달리 자연 그대로의 색과 맛이 인상깊었다"고 상찬했다.

김기영(서울 중구) 씨는 "일본 말차와는 달리 차향과 맛이 더 그윽하다"면서 "강연을 듣고 먹어선지 더 맛이 좋았다. 정신도 맑아지는 기분"이라고 밝혔다.



7월 17일 열린 '고려단차의 특징' 강연에서 박동춘 소장에 의해 복원된 고려단차를 시연단이 시연을 하고 있다.



고려단차는 차 가루에 물을 부어 격불하는 '점다법'을 사용한다.



박동춘 소장이 복원한 고려단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단차 복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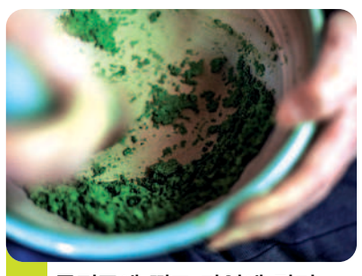
1 찻잎 따기 및 고르기
- 찻잎은 창처럼 뾰족한 잎을 선별
- 묵은 잎, 줄기 등은 별도 고르기



2 시루에 찌고 식히기
- 대발에 모시나 삼베를 깔고 찌기
- 섞어주다 익으면 신속히 식혀야



3 고(膏) 짜기
- 무거운 돌 얹혀 찻잎의 즙을 짜내
- 찻잎의 탁한 엽록소를 빼는 과정



4 돌절구에 찧고 다연에 갈기
- 절구와 돌확 등을 사용해서 찧기
- 차 분말을 미세하게 하는 과정



5 틀에 넣고 찍어내기
- 가루된 찻잎을 고형화하는 과정
- 고려시대엔 방형 · 원형 등 틀 다양



6 무쇠솥 및 온돌에 건조
- 무쇠솥은 80℃ 온도 유지가 관건
- 온돌 건조는 수분 완전 제거 과정



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연기법은 자연계서도 적용 가능”

주제 : 양자역학과 반야심경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7월 17일 서울 다보빌딩 다보원서 〈현대물리학으로 풀어본 반야심경〉의 저자인 김성구 교수를 초청해 화요열린강좌를 열었다. 김 교수는 ‘양자역학과 반야심경’을 주제로 불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반야심경〉을 물리학 관점서 조명하는 내용으로 강의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김성구 교수는… 서울대 문리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 미 워싱턴 대학교서 이론 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불교에 뜻을 둬 동국대 불교학과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올해 함양 약천사를 건립해 뜻 있는 불자들이 모여 공부 · 수행 · 토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천태사상으로 풀이한 현대과학〉 등이 있다.

이번 강의는 반야심경의 내용과 맞닿아있는 물리학적 개념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 개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비난도 존재합니다. 인도 대통령을 역임했던 라다 크리슈난과 철학자 존 노스는 “어떤 불교도들은 자아를 단지 공이라고 여김으로써 그것을 형이상학적 추상으로 던져버린다” “무상 · 고 · 무아 개념들은 삶에 대한 인간의 의기를 소침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 평가들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공 · 중도 VS 이분법 · 실체론

먼저 불교만 유독 평화로운 종교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로 꼽히는 다른 종교들(그리스도교, 이슬람교)은 모두 폭력이 아닌 사랑과 관용을 가르쳤습니다. 성자들의 가르침과 달리 마녀사냥과 종교전쟁이 자행된 것은 어째서일까요?

성자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종교인들의 철학과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침과 더불어 불자들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종교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실체와 세계관’에 대한 인식은 타 종교들과 다릅니다. 종교가 세계평화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르침이라면, 불교의 핵심경전인 〈반야심경〉서 논하는 공(空)과 중도(中道)의 원리에 기반을 둔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분법적 사고와 실체론적 세계관과 대척점에 있는 인식입니다.

만약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다면 무엇이 선이고 정의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과 중도의 원리대로라면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실체론적 입장서 볼 때 과연 마녀사냥은 악행이고 잔인한 일로 받아들여질까요?

타 종교서 언급하는 ‘성인’ ‘성자’는 대승불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기는 ‘보살’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인은 신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과 중세 기독교인들은 악을 멸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는지, 관계론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선과 악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분법적 사고의 바탕에는 사물을 실체로서 인식하는 ‘실체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선과 악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고, 악은 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선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이교도를 정벌 · 약탈 · 학살한 일들은 모두 신과 정의라는 명분 아래 인간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연기법 이치 따르는 불교,
실체론적 타 종교와 구분
입자–파동 이중성 띠는 빛
양자역학 내 ‘空’ 반영 사례

이어서 우리는 사물의 이중성(二重性)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성은 양면성(兩面性)과는 다른 개념으로, 한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띠는 것입니다. 즉 논리적으로 모순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분리된 다른 둘로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 사물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색심불이(色心不二)’ ‘색즉시공’ ‘생사 즉 열반’ ‘범부 즉 부처’ ‘번뇌 즉 보리’ 등 불교적 표현은 모두 이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부 즉 부처로 예를 들어보면, 범부일 때도 있고 부처일 때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범부이면서 부처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입자–파동의 이중성

그렇다면 자연에서도 이중성에 해당하는 현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 기초 개념인 ‘입자-파동의 이중성’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양자역학에서 퀀텀(양자, quantum)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퀀텀은 덩어리, 덩어리로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양자역학은 ‘힘과 운동’의 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자역학은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인 것이죠.

입자와 파동에 대해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자는 아무리 움직여도 개수가 그대로죠. 충격을 가해 다른 입자에게 운동량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입자의 성질이죠. 하지만 파동은 진동은 있지만 충격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골과 골, 마루와 마루가 겹칠 때 진폭은 두 배가 됩니다. 파동의 세기는 항상 진폭의 제곱으로, 진폭이 1이라고 할 때 세기는 2, 진폭이 2일 때 4 등이 되죠. 그런데 세기가 다른 파동을 잘 조절해서 합친 파동이 모이면 골과 마루가 합쳐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결국 제로가 됩니다. 즉 보강간섭과 소멸간섭 모두 파동의 성질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입자는 덩어리로 떨어져 셀 수 있고, 공간에 갇혀 있으며, 몸에 해당하는 ‘실재’고, 개별 입자가 갖는 물리량의 합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연속적이라 나누거나 셀 수 없고, 전파되며, 몸짓에 해당하는 ‘현상’이며, 보강과 소멸이란 간섭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이면서 0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파동과 입자는 각각 논리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성질들을 띠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중 슬릿(double slit)’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벽면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빛을 쪼이면 두 개 구멍을 통과한 빛은 반대편 벽면에 명과 암이 교차하는 무늬인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입자는 간섭무늬를 만들 수 없고 파동만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빛이 간섭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라고 증명된 셈이었죠. 이 실험 전까지 당대 물리학자들은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컴프턴(Compton)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컴프턴이란 물리학자는 이 실험을 통해 ‘컴프턴 효과’를 발견합니다. 당구공이 다른 당구공을 쳐서 튕겨내는 것처럼 빛이 다른 입자를 쳐서 튕겨내고 빛 자신도 튕겨나는 현상이에요. 이성적 사유로 볼 때 빛은 절대 파동인 이상 입자일 수 없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면 입자를 튕겨나가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빛이 전자를 튕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물리학자들은 빛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교는 이중성이 자연의 본질일 뿐 아니라 사물 전체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깨우친 자가 부처고 깨치지 못한 자가 범부라고 할 때, 범부가 그대로 부처라고 하죠. 여러분이 눈만 뜨면 부처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소립자들이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석가모니만 파동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가 파동이었다는 것과 같죠.

확률파의 공 원리

입자 파동의 이중성서 말하는 파동을 현대 물리학에선 ‘확률파’라고 해석합니다. 확률파는 ‘공(空)’과 비교할 만한 개념입니다. 독일 물리학자 막스 보른은 입자가 파동처럼 모든 공간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모든 공간에 걸쳐 분포돼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파동의 전파는 입자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전 공간에 걸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확률파를 이해하려면 측정하지 않고 입자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측정 전에는 ‘입자가 존재할 가능성’만이 있을 뿐이에요. 측정을 하면 파동은 사라지고 입자가 나타납니다. 즉 측정 후에야 비로소 입자의 존재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확률파는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통상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개념인 것입니다. 소립자는 먼지나 모래알 같은 어떤 알맹이가 아니에요. 미시세계의 소립자란 단지 존재하려는 경향일 뿐, 객관적 존재일 수 없습니다. 측정장치와 상호작용 이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불교서 말하는 연기법과 닮았다고 여겨집니다.

연기법과 물리학

스몰린 리는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을 통해 사물의 실재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어떤 것(things)’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주에는 물체(object)와 과정(process)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반야심경〉이 담고 있는 불교적 진리와 더불어 생각해볼 만한 물리학적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금령 박영보가 쓴 시첩. 〈몽하편병서〉〈남다병서〉〈초의입정(草衣入定)〉 3편의 시가 합첩됐다. 시에는 스승인 신위와 초의선사에 대한 존경심이 그대로 묻어난다.

스승과 초의 존경심 시로 읊다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⑭ 금령 박영보의 시첩

금령 박영보(錦舲 朴永輔, 1808~1872)는 박문수의 손자이다. 신위의 제자이며 한때 암행어사로 임명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초의를 처음 만난 것은 1830년경이다.

이산중이 얻은 초의차를 박영보에게 나누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초의의 명성을 알게 된다. 그가 초의차를 맛본 후 쓴 것이 〈남다병서〉이다. 신위는 이 시에 화답하여 〈남다시병서〉를 쓰기도 하였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바로 박영보가 초의에게 자신이 지은 시를 첩으로 묶어 보낸 시첩이다. 이는 그가 초의와의 교유를 증표하기 위한 것인데 시첩크기는 21.5×13.5cm이며 1830년에 지은 〈몽하편병서(夢霞篇並序)〉와 〈남다병서(南茶並序)〉, 1850년에 지은 〈초의입정(草衣入定)〉 등 3편을 합첩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몽하편병서〉이다. 이 시를 짓게 된 내력은 서문에 자세한데 바로 초의가 일지암으로 거처를 옮긴 날 밤, 꿈속에 신위가 이곳을 찾아왔던 사실과 신위가 글씨를 썼다는 내용이 보인다.

따라서 이 시첩은 박영보가 자신의 스승인 신위와 초의의 교유의 깊이를 드러낸 자료일 뿐 아니라 다산가의 인맥과 추사의 인맥은 물론 홍현주 집안 형제들, 김조순 일가, 이만용 등으로 확대되었던 정황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 하겠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남다병서〉는 경화사족들의 차에 관한 관심이 촉발된 시기에 지은 시이다.

물론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은 초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초의에 의해 차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인 것이다. 따라서 초의의 차에 대한 안목과 열정은 조선후기 차 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셈이라 하겠다.

초의와 신위와의 깊은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몽하편병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의 선사께서 두륜산 서쪽 가에 새 초가집을 짓고 거처를 옮기던 날 저녁, 꿈에 사람이 외치기를 자하도인(紫霞道人)이 오셨다고 하였다. 나가보니 청사를 입은 수재인데 나이가 40여 살쯤 되어 보였다. 성씨를 물으니 웃으며 답하지 않더니 이름을 써서 보여 주었다. 조금 있더니 냉금지(중국 수입 종이로 금이나 은을 뿌려 장식한 종이)를 펴 행초로 초당의 편액을 소제(蕭齋)라고 지었다. 또 예서로 대내(對耐) 두 글자를 쓰시다가 내(耐)자의 촌(寸)변에 이르자, 초의에게 완성하기를 재촉하였지만 초의는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마침내 다시 붓을 들어 쓰기를 마쳤고, 또 설백지(雪白紙)로 방산관(方山冠) 하나를 만들어 네 변에 담묵으로 산수를 그렸는데 이름을 문수관(文殊冠)이라 하였다. 이것을 초의에게 주셨으니 과연 무슨 상서로운 징조인가. 초의가 올해 한양에 왔다가 나를 보고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천리나 되는 해남으로 자하도인을 불러 꿈속에 이르게 했으니 한갓 자하의 선열이 환몽한 것이 아니라면 초의 또한 기인이라 할 것인 저. 그를 위해 장구(長句)를 지어 기록하노라.

夢霞篇並序

草衣禪師新結茅 頭輪西麓 移居之夕 夢人呼曰紫霞道人來矣 卽見一靑衫秀才 年可四十許 問姓笑不應 而書名示之 少頃展冷金箋 行草作堂扁曰蕭齋 又隸書對耐二字 書至耐字寸邊 令草衣足成之 草衣辭不敢 遂復援毫畢書 且以雪色紙 製一方山冠 四邊畵淡墨山水者 名曰 文殊冠 以贈師 是果何祥也 草衣今年來京師 對余誦以夢如此 海南千里 能致紫霞入夢 非徒紫霞禪悅所幻 師亦異人哉 爲作長句紀之

꿈속에 만난 신위 모습을 마치 현실에서 본 것처럼 묘사된 〈몽하편〉의 서문은 초의가 신위를 얼마나 흠모했는지를 드러낸다. 초의의 꿈속에서 신위가 "설백지(雪白紙)로 방산관(方山冠) 하나를 만들어 네 변에 담묵으로 산수를 그렸는데 이름을 문수관(文殊冠)이라 하였다. 이것을 초의에게 주셨으니 과연 무슨 상서로운 징조인가"라고 하였는데 방산관은 바로 방사(方士)나 유랑객이 주로 썼던 모자를 말한다. 시 · 서 · 화 삼절이라 칭송된 신위가 그린 담묵의 산수는 얼마나 담담하고 선미를 드러낸 작품이었을까.

박문수 손자 박영보, 詩文 능해

초의차를 접하며 교류하기 시작

長詩로 스승 신위 · 초의 예경해

"도인과 선사 서로 알아봄이라"

'몽하편병서' 등 3편의 시 합첩

다산 · 추사 인맥들 확인 가능해

아무튼 박영보가 그려낸 신위의 풍모는 신선 같았고 초의 또한 수행력 깊은 승려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영보가 그려낸 두 사람의 모습은 이렇다.

자하도인은 지금의 태백선인이며
초의는 호승국(胡僧國)의 현신이라.
시객은 세상에 거듭나서 한림으로 들어가고
초의선사는 일심으로 불공드리는 일 맡았네.
남해의 북쪽, 해남의 남쪽에
푸른 산 잇닿은 곳, (초의가)주석했네.
동백꽃 십리 길은 눈을 붉게 태우는데
천년의 산 가득한 안개, 검게 얼굴을 물들이네.
바루와 물병 하나가 일상의 삶이라.
흐르는 물과 구름처럼 떠돌며 산다네.
여산에서 홀연히 자담(子瞻)이 왔음을 알리니
환희로운 인천(人天)은 크게 생색이 나네.
사십 살의 서생, 벼슬살이가 애처로운데
미간은 훤칠하고 문장을 잘 하네.
하늘을 지나 땅 위에 내리시니
어렴풋이 명자(名字)를 기억했네.
글 잘 짓는 사람, 푸른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주문(籀文)은 추운 모래자갈에서도 마모되지 않았네.
소슬한 절집을 소재라 지은 들, 무슨 해로움이 있으랴.
경계를 대함에 능히 인내하여 정력(定力)을 보이시길.
묘한 붓, 냉금전 종이에 구름처럼 떨어지니
먹 향은 치자 꽃향기를 뿜어내네.
방산관에 그린 그림, 미가(米芾)의 산수이고
옥설처럼 빛나는 종이로 깨끗하게 꾸몄네.
옛날엔 혹 진계상이 얻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서축에서 온 것이라.
하늘에서 꽃비 내리니 나비가 놀라 흩어지고
신묘한 이치 주합 뒴은 바퀴를 돌리는 것 같네.
멀리 천리에서 초의 스님이 한양에 오시니
일시에 어르신들, 용산 곁에 모였네.
내가 와서 곁에서 문자의 인연을 증언하니
도인과 선사가 마침내 서로 알아봄이라.

紫霞道人今太白 草衣現身胡僧國 詞客再世入翰林 禪師一心供佛職 南海之北海南南 卓錫開山靑崩男 茶花十里燒眼紅 嵐氣千年染面黑 一鉼一鉢是生涯 流雲流水同栖息 廬山忽報子瞻來
歡喜人天大生色 四十書生慘綠衣 眉宇粹朗工翰墨 經天之下地之上 依俙記得名字書
繡口吸盡西江靑 籀文沙石寒不泐 蕭寺何妨作蕭齋 對境能耐見定力 妙鬘雲落冷金箋
墨海香噀花簷葡 高冠方屋米家山 紙光玉雪明塗飾 古或得之陳季常 不然定亦來西竺
蝴蝶驚散雨花天 神理湊合如轉轂 千里緲錫漢陽來 一時杖屨龍山側 我來傍證文字緣
道人禪師竟相識 錦舲漁人 書奉草衣禪師經榻

제법 긴 장시로, 이는 박영보가 얼마나 시에 능했던 인물이었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신위를 마치 여산에서 은일했던 자첨(子瞻)이 온 듯하다는 것인데 자첨은 바로 소식(蘇軾, 1037~1101)을 말한다. 아마 그는 스승 신위가 소식처럼 글 잘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림에 능했던 신위를 "묘한 붓, 냉금전 종이에 구름처럼 떨어지니/먹 향은 치자 꽃향기를 뿜어내네./방산관에 그린 그림, 미가(米芾)의 산수이고/옥설처럼 빛나는 종이로 깨끗하게 꾸몄네"라고 하였다. 바로 신위가 북송대의 미불(米芾, 1051~1107)처럼 그림을 잘 그렸다는 것이다.

미불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북송 태원 사람으로 자는 원장(元章)이고, 호는 남궁(南宮) 또는 해악외사(海岳外史), 녹문거사(鹿門居士)라 불렀다. 규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기행(奇行)을 일삼았으며 결벽증이 심했다고 전해진다. 수묵화뿐 아니라 문장과 시서(詩書)에 능했던 그는 소동파(蘇東坡)와 황정견(黃庭堅) 등과 친했다.

글씨를 잘 써 채양(蔡襄)과 소동파, 황정견 등과 함께 '송사대가(宋四大家)'로 칭송된다. 아름다운 강남의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 미점법(米點法)이라는 독자적인 점묘법을 창시했다.

그의 화풍은 오진(吳鎭), 황공망(黃公望), 예찬(倪瓚), 왕몽(王蒙) 등 원말 사대가에게 영향을 미쳤고, 명나라의 오파(吳派)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 시에서 박영보는 미불의 예술 세계, 즉 그림의 기량을 바로 조선의 신위가 방불한다는 것이다. 그가 마음에 품었던 스승에 대한 존경은 이 시를 통해 길이길이 남겨질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흰 옷·납경장·지팡이 들고 길에 오르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② 순례의 첫 걸음

김해공항에서 오사카까지 약 2시간, 다시 오사카공항에서 도쿠시마 역까지 3시간 반 남짓. 다시 전차로 갈아타고 1번 절 료젠지(靈山寺) 근처의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시코쿠 88개소에 포함된 절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당의 문을 개방한다. 순례에 필요한 흰 옷과 지팡이 등을 사고 참배를 하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잠시 생각한 후에 본격적인 순례는 이튿날 떠나기로 결심하고 물건을 사곤 간단하게 절을 둘러보기로 한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서 이리저리 보고 있으려니 절 안에서 직원이 나오신다.

"오헨로상(순례자님),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저, 방금 도착했는데 아직 일정이 전혀 안 잡혀서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노숙을 감안하여 침낭과 비상식량을 한 짐 짊어지고 왔기에, 근처에 노숙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었다. 직원 분은 이야기를 죽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첫날부터 노숙은 좋지 않아요, 또 절 근처에 노숙이 가능한 곳도 없구요."

대신 절 근처에 싼 숙소가 있다고 알려준다. 식사 없이 잠만 자는데 2000엔이라는 이야기에 예약을 부탁했다. 10분정도 뒤에 숙소 주인이 픽업을 위해 나왔다. 주인을 따라 걷노라니 절에서 길을 하나 건넌 곳이 숙소였다.

필자가 처음 순례했던 2011년 당시에 1번 절 근처의 저가 숙소는 단 2곳뿐이었으나 최근 도보순례자들이 늘면서 절 근처에 저가숙소가 한 곳 더 생겼고, 도쿠시마 시내나 근방의 숙소에 묵으면 1번 절까지 픽업과 배웅을 해주는 곳들이 더 생겼다.

숙소에서 짐을 풀면서 주인과 이야기를 한다. 마침 도보순례를 한 적 있는 주인이었다. 내 짐을 하나하나 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빼주고, 필요한 약품을 몇 개 챙겨 주었다. 한국인이 여기에 묵는 것은 내가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박 상은 공부를 많이 하고 왔으니까 알겠지만, 흰 옷과 지팡이, 삿갓은 수의에요. 걷는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한 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흰 옷은 수의, 삿갓은 관 뚜껑, 지팡이는 묘비라고 알려준다. 옛날에는 순례 중에 명을 다하면 죽은 그 자리에 매장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유품에 금전이 있다면 묘비를 세웠지만, 아니라면 죽은 그대로 묘를 만들었다. 이때 얼굴에 흙이 들어가지 않게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묻은 뒤 묘비를 대신해 지팡이를 꽂아 주었다고 한다.

시코쿠 순례에서 지팡이만큼은 소중하게 다루라고 한다. 시코쿠 순례길에서 지팡이는 '콘고즈에(金剛杖)'라고 부른다. 손잡이 부분에 오륜탑(五輪塔)이 새겨져 있기에 지팡이 자체가 불탑(佛塔)인 이유도 있지만, 시코쿠 순례에서만큼은 코보대사의 화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아마 동행이인(同行二人)의 순례를 위해 길동무인 지팡이를 그리 여기는 것이리라.



순례 사찰 납경소 직원이 납경을 써주는 모습. 원래는 순례자들이 자신이 사경해온 경전을 공양 올리는 것이었으나 현대에는 그 뜻이 조금 바뀌어 사찰 순례 증표로 쓰인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1번 절로 들어간다. 먼저 산문 옆의 미즈야(水屋)에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군다. 흔히 한국불자들이 우리나라의 약수와 오해하여 마시곤 하지만, 일본의 미즈야는 목욕재계의 뜻을 담고 있다.

먼저 본당에 들어가 초와 향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외운다. 보시함 옆의 안내문에 '미리 요청하면 주지스님의 인도로 십선계를 받고 출발할 수 있다' 고 쓰여 있다. 보통 단체순례자들이 순례 전에 십선계를 받고 출발한다. 순례 중에 모든 행동을 조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잠시 생각하다가 배낭을 풀고 놓고 우슬착지한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낱낱이 참회하고, 일체중생의 선업을 수희 찬탄하여, 마음에 부처의 깨달음을 지니게 하소서. 불법승 삼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제가 귀의 합니다. 나와 남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나이다. 최상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중생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 여겨 최고의 보살행으로 아름답게 행하여, 모든 중생 돕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계를 받는 게송을 외운다. 순례길의 걸음걸음이 모두 보살행이 되기를,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발원한다.

흰 옷은 수의, 삿갓은 관 뚜껑
'金剛杖' 지팡이는 묘비 상징해

순례시 본당-대사당 순으로 참배
납경장에 도장 · 본존 이름 받아야
모든 순례寺 오후 5시까지 개방돼

본당에서의 참배를 마치고 대사당(大師堂)으로 향한다. 대사당이란 코보대사를 모신 전각을 말한다. 시코쿠 88개소의 모든 사찰들은 대사당이 있으며, 본당을 참배한 후에 대사당을 참배하는 것이 순례의 예법이다.

대사당까지 참배를 마치고 납경소(納經所)로 들어선다. 납경이란 원래 순례 온 이들이 자신이 사경해온 경전을 공양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 뜻이 조금 바뀌어 절을 순례했다는 증표로 공책이나 족자에 절의 도장과 본존불의 이름을 받아가는 것이 되었다.

납경소에 달린 가게에서 흰 옷과 납경을 받을 납경장(納經帳)을 산다. 지팡이도 살까 했는데 밖의 지팡이 꽂이에 버려진 지팡이에 눈이 간다.

"Please with you!(당신과 함께 해주세요)"

어느 순례자가 자신이 다 쓴 지팡이를 꽂아두고 간 것이다. 살짝 뽑아보니 길이나 굵기가 적당하다. 지팡이가 코보대사의 화신이란 이야기에 생각이 미치니 슬쩍 웃음이 난다. '대사님, 아직 쉬실 때가 아닌가 봅니다.'

납경을 써주시는 스님이 책상의 두툼한 공책을 내민다. 이름과 출발일을 써달라고 한다. 항목을 보니 순례를 마친 날짜도 쓰여 있다. 혹시나 해서 앞을 좀 뒤져보니 한국인은 딱 두 사람이 있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도착일이 쓰여 있지 않았고, 한 사람은 '20일째에 다리가 다쳐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다.' 라는 메모가 있었다. 무사히 이 공책을 다시보길, 하는 마음으로 출발일을 쓴다. 아침 8시. 작열하는 여름 햇볕이 뜨거운 길을 나선다.

걸음이 빠르다면 1번에서 9번 절까지 하루에 다 돌 수 있다. 절간의 거리가 멀어봤자 5km 안팎이기 때문이다. 내지는 9번을 가는 길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걸음에는 나름 자신이 있기에 모든 순례에서는 9번까지 다 돌고 하루를 마쳤다.

이 길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두 가지 있다. 먼저 7번 쥬라쿠지(十樂寺)의 산문에서 일사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무슨 정신인지 잠시 기절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곤 미즈야에 머리를 처박았다. 열이 좀 식으니 사리분간이 가능했다. 마침 미즈야 근처였고, 일행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객사할 경험이었다.

지금 와서야 '거 순례 중에 죽으면 대사님이 손을 잡고 극락으로 데려가신다는데, 또 마침 7번절 본존이 아미타불이신데 그대로 극락왕생할 뻔했다' 라고 농담을 하곤 하지만, 그해 여름은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서(暴暑)였다. 순례 중에 간간히 열사병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가 종종 들려왔다.

다른 한 가지는 순례길 가에서 죽은 어느 비구니 스님 이야기다. 역시 7번 절로 가는 중간에 있는 어느 휴게소에 얽힌 이야기다. 휴게소에 앉아서 잠시 땀을 식히고 있으려니 할아버지 한분이 다가오셨다. 휴게소를 관리인을 자처하시는 할아버지는 일반적인 인사말을 한두 마디 건네시더니 내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말에 말문을 여셨다.

"형씨가 불교를 공부한다니까 말하는 구만. 여기엔 원래 덕이 높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사시던 작은 암자가 있었어."

흥미로운 주제에 귀가 열렸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인 듯 쉬지도 않고, 자세하게 이름과 지명까지 짚어가며 말씀해주셨다.

"여기엔 워래 묘카이(妙海)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지. 오헨로상들을 재워주시고, 먹여 주시는 등, 그야말로 보시행을 자신의 수행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신데 내가 15살 때 병이 중하게 드셔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하셨지. 스님 본사가 히로시마에 있는데 워낙 연로하셔서 걷질 못하시니 내가 등에 업고 모시기로 했어. 배를 타고 히로시마로 가는데, 히로시마행 배에 딱 오르니 그대로 몸을 버리셨어. 내 등에서 말일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스님의 세수가 70세였을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게 꼭 잠에 들어 계신 것 마냥 편안한 얼굴로, 히로시마에 도착할 때까지 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 팔다리도 부드러웠어. 난 분명 대사님이 묘카이 스님을 데려가신 것이라고 믿네."

원래 배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다에 시신을 던지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선장을 찾아가선 이분은 보통 스님이 아니니 반드시 당신 절로 법구를 옮겨야 한다고, 남자 간의 약속을 하자는 말로 담판을 지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스님의 시신은 본사에서 화장했겠군요?"

"그렇지. 난 끝까지 못 지켜봤지만 나중에 제자 스님이 화장한 유골을 모시고 와서 여기에 분묘를 하나 세웠어. 제자스님에게 들어보니 묘카이 스님은 원래 잘사는 집의 따님이셨다고 하더군."

할아버지는 나를 휴게소 옆에 모인 순례자들의 무덤으로 안내했다. 옹기종기 모인 무덤 사이로 자그마한 비구니 스님의 조각이 모셔진 묘가 있었다. 소박하게 조각된 상호엔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당신이 순례자들을 돌보며 생을 마감하신 터에 여전히 순례자들을 조용히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자니 이런 저런 생각이 났다.

묘 앞에 향을 하나 사르고 두 손을 모았다. 할아버지도 손을 잠시 모으시곤 이야기 하셨다.

"여기 시코쿠에선 오헨로상들을 허투루 보지 않아요. 부처님이나 코보대사님이 순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 아마 묘카이 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생을 여기서 순례자들을 맞이하신 거 아니겠나. 스님이 먹이고 재운 부처님과 대사님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야."

〈자유기고가〉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범죄경력조회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나는 아이폰을 사도 괜찮을까?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⑭ 중도 소비



그림 · 박구원

아이폰은 가장 비싼 휴대폰이다. 부자는 당연히 사도 문제되지 않는다. 중산층이 사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서민이 사면 문제가 될까? 중국에서 아이폰을 사고 싶어 장기를 팔았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참으로 섬짓했지만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처음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열풍에 비하면 지금은 다소 시들하지만 여전히 아이폰 매니아들이 많다. 나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안드로이드폰보다 더 좋다. 무엇보다도 단순하면서도 멋진 디자인이 젊은 세대에게 많이 어필한다. 매장에 가보면 대부분 아이폰보다 싼 휴대폰이고 물론 공짜인 휴대폰도 있다. 아이폰은 서민이 사기엔 부담이 되는 폰이며 서민이 사용하고 있다면 주변에서 과연 서민이 아이폰을 써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서민이 아이폰을 사면 사치라고 해야 할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 판단일 수 있지만 나는 서민이 아이폰을 사는 것은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불교의 관점에서 사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자도 있을거다. 부자는 당연히 아이폰을 사도 사치는 아니다. 언젠가 뉴스를 보니 휴대폰에 여러가지의 보석을 붙여 수천만원에 판매한다. 만약 아이폰에 다이어몬드와 사파이어를 박으면 수천만원은 금방될 거다. 이런 초고가 아이폰을 부자가 산다면 사치일까 아닐까? 나는 사치라고 생각한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어떨까? 아마 많은 불자들이 사치라고 생각할거다.

경전을 보면 부자가 고가품을 사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고가품을 사는 것을 부처님은 달리 판단하셨다. 가난한 사람에게 사치일 수 있는 품목이 부자에게는 사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기준이다. 만약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무조건 아이폰을 사면 안 된다고 한다면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불교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다양하고 유연한 기준을 추구한다. 따라서 교리상으로도 획일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지만 경전에도 구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부자는 돈이 많기에 아이폰을 사도 괜찮지만 서민이 아이폰을 산다면 사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적 소비의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분수에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부자는 아이폰을 사도 분수에 맞는다. 서민은 아이폰을 사면 분수에 맞지 않는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박은 초고가 휴대폰을 사는 것은 중도적 소비라고 할 수 없다. 즉 아무리 부자여서 수천만원짜리 휴대폰을 사는 것이 분수에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휴대폰의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중도적 소비라면 첫째 분수에 맞아야 하지만 둘째 기능과 목적에 맞추어 적정해야 한다. 수천만원짜리 제품이라고 무조건 부적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는 부자에게 부적정한 제품이 아니다. 그러나 수천만원짜리 휴대폰은 적정한 소비라고 볼 수 없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치장한 휴대폰은 아름다움을 위한 차원을 떠나 과시욕구의 범주에 들어간다. TV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다운튼 애비'에서 귀족들의 스푼을 집사가 하인에게 가르친다. 하인은 티스푼, 에그스푼, 멜론스푼, 잼스푼, 포도스푼, 테이블 스푼을 구별하여 주인이 필요할 때 각각 놓아야 한다. 드라마에서는 영국 귀족의 호화로운 삶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여 나를 더 부각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초고가 휴대폰으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반짝이게 하여 상대의 기를 죽이고 으시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오늘날 소비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비교는 인간의 징그러운 본능이다. 거지는 이건희 회장과 자신을 비교하고 슬퍼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구걸을 더 잘해서 돈을 더 잘 버는 동료 거지와 자신을 비교하고 슬퍼한다. 소비중독은 현대인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 암과 같은 존재다. 소비중독이라는 암은 비교라는 영양제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비교를 시작하면 돌이키기 매우 어려운 소비중독의 길로 들어선다.

일본에서는 전재산을 투입하여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스포츠카 페라리를 구입한 뒤에 집이 없으니 페라리에서 잠을 자고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식사를 해결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생리욕구를 처리하는 페라리 거지가 있다. 한국에서도 돈 빌려 집을 샀다가 가난해지는 '하우스 푸어'에 이어 돈 빌려 고급 자동차를 산 뒤에 가난해지는 '카푸어'도 등장했다. 중산층이 1억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분수에 어긋난다. 부자가 구입한다면 분수에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 10억원에 가까운 차는 어떨까? 그 정도는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리 부자여도 그 정도의 승용차는 분수에 어긋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좋은 차를 위한 투자는 끝이 없을것이다. 20억짜리 승용차도 초첨단 기술을 장착 하면 30억짜리가 될 수 있다. 부자는 자기의 돈이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탄생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소비에도 중도적이어야 한다. 아무리 부자여도 10억원 20억원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중도적 소비란 분수에도 맞아야 하지만 기능과 목적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소비도 분수에 맞아야
인간 본능 속 아름다움 추구
중도적 소비 범주선 인정

불교는 '행(실천)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행위를 하니 부처다'라는 말도 있다. 깨달으면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분명 단순 소박한 삶을 산다. 우리는 과연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영원히 오지 않을 깨달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 행위에 의해 우리의 사고와 태도가 바뀐다. 따라서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단순 소박한 삶이 스스로 체화되도록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 소박한 삶을 통해서 마치 깨달음에 도달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중도적 경제관은 스스로 단순 소박한 삶을 실천하는 경제관이다. 다만 인위적이고 금욕적으로 단순 소박한 삶을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미국에서 초코렛과 욕망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금욕이 절제에는 서투른 처방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정기간 동안 초코렛을 먹지말라고 한 뒤에 초코렛을 먹도록 허용한 집단이 자유롭게 초코렛을 먹게 한 집단 보다 초코렛의 소비량이 더 많았다. 우리는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한다. 불교의 절제를 금욕으로 생각한다면 구태여 불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

백화점에 가보면 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 오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름답고 멋진 옷이 넘치니 누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나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남자들 옷이야 유행을 덜 타기 때문에 괜찮다 쳐도 여자들 옷은 유행이 자주 바뀌니 돈이 없으면 유행에 뒤떨어진다. 한 때 남자들 자켓에 단추 3개짜리가 유행한적이 있었는데 나는 딱 한 번 3개짜리 옷을 구입한 적이 있었다. 왠지 곧 2개짜리로 회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잠깐 3개짜리 단추가 유행하더니 곧 2개로 돌아갔고 요즘은 2개짜리가 대세다. 나는 옷을 살 때마다 가능하면 유행을 덜 탈 것 같은 옷을 산다.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은 언제나 입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젠스타일 즉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하는 불교적 디자인이어서 내 마음도 편하다. 그러나 멋진 옷을 보면 누구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부처님은 아름다운 옷을 사고 싶어하는 불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들은 처음에 분소의라는 옷을 입었다. 분소의는 시체에 입혀져 있는 옷을 벗겨서 기워 만들어 입은 옷이다.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옷이다. 분소의를 입는다면 누구나 물질에 대한 욕구를 극복하게 될 것 같으니 알고 보면 참으로 효과가 있는 처방이다. 빔비사라왕의 주치의였던 지바카는 당시 최고의 명의였으며 부처님을 존경하던 빔비사라왕에 의해 불교교단에 파견되었다. 지바카는 분소의에 묻어 있던 병균 때문에 스님들이 자주 병에 걸리는 것을 알고 분소의를 입지 말 것을 부처님께 건의했다. 부처님은 중도를 추구하는 합리의 화신이기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중에 교단에서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다가 다시 분소의를 입자고 주장할 정도로 분소의를 입는다는 것은 물질적 욕망을 떠난 상징으로 여겨졌다. 제바달다는 분소의 이외에도 고기를 먹지 말자는 주장 등을 하는데 부처님은 이를 거절하고 제바달다는 수많은 추종자를 데리고 교단을 이탈한다.

비록 분소의는 입지 않게 되었지만 출가자들은 호화로운 옷을 절대 입지 못하였고 3벌의 옷만 허용되었으며 새 옷감이나 새옷을 받으면 아름다운 색을 청, 흑, 모란색(木蘭色)으로 바꾸는 괴색(壞色)을 하였다. 부처님의 의도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아름다운 옷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고 명하실 것 같다. 그러나 뜻밖에도 부처님은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계신다. 사분율은 "연화색 비구니는 한 벌의 값진 상가아티이를 입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않거늘 하물며 해어진 옷이겠느냐?"라고 설한다. 또한 비구가 비구니로부터 옷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구가 비구니의 좋은 옷을 뺏기도 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전에서 좋은 옷이라고 할 때 '좋은'은 '귀상(貴價)' 혹은 '상(上)'이라고 표현하였다. 여성은 귀하고 상급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불교는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 없다. 항상 유연하고 다양한 제도를 허용한다. 출가자와 재가자를 동일 잣대에 놓고 규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출가자에게는 돈은 만지지도 말고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엄격하게 통제하셨지만 재가자들에게는 돈은 좋은 것이니 열심히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 돈을 벌 때는 열심히 벌라고 하셨지만 돈을 소비할 때는 절제를 가르치셨다. 부처님이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다고 모두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벌라고 요구한다면 그것 또한 극단이다.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에게 무소유를 주장한다면 극단이다.

출가자에게는 분소의나 괴색으로 아름다움을 멀리하도록 요구하셨을지라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인정하신 것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은 여성에게 더 강하고 출가자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본성이 있음을 아시고 비구와는 달리 비구니에게는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가자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실 리가 없다.

불교의 이상적 군주인 전륜성왕의 궁전은 온갖 호화로운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장아함경〉에 의하면 "금다락에는 은평상 은다락에는 금평상이 있어 곱고 보드러운 금실로 짠 자리를 그 위에 깔았다. 수정 유리 다락과 평상도 또한 그러했다. 그 법전의 광명이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은 마치 태양이 너무 밝아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반드시 중도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분수에 맞고 적정해야 한다. 중도적 소비의 범위 내에서라면 아름답고 멋진 옷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아름답고 멋진 옷이라 할지라도 분수에 맞고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적정하면 괜찮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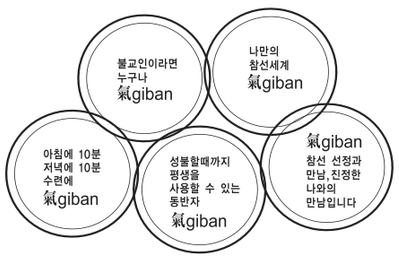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왕사성의 비극, 정토를 알리다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㉗ 정토삼부경 3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1

우리들의 파라다이스. 극락은 어떤 곳인지 〈아미타경〉으로 살펴보고, 그 곳엔 누가 있어 우리를 이끌어주는지는 〈무량수경〉으로 살펴봤다. 이제 그곳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관무량수경〉을 만나 볼 차례다.

극락 가는 길을 알려주는 로드맵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왕사성의 비극' 이란 타이틀을 지닌 슬픈 이야기가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부처님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마가다국으로 주변국을 이끌고 있었다. 주변국인 가필라국의 정반왕은 후계자 싯다르타, 곡반왕은 데바닷다가 태어났지만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은 후계자를 얻지 못해 노심초사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술가를 만나 비부리산에서 수도하는 이를 잘 공양하면 그가 왕자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찾아가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언제 죽어 인연을 맺을 것인가 묻자 그 선인은 3년이라 말하지만 왕은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선인을 죽였다.

그 날로 왕비 위제희에게 태기가 있어 열 달 후에 탄생하니 그가 바로 아사세다. 점술가들은 이 아기와 대왕은 원한이 서려있다는 말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란다. 그 선인이었다. 왕은 이성을 잃고 아이를 죽이려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번번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마지막에 아이의 요람을 누각에서 떨어뜨렸지만 또 살아난다. 그 때 입은 상처로 손가락이 부러졌다. 고통으로 울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보며 빔비사라왕도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울며 공포를 잊고 성심을 다해 잘 길러보리라 마음먹는다.

그 사이 카필라국의 싯다르타는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고, 데바닷다도 출가했다. 데바닷다는 총명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할 줄 알았건만 가섭을 비롯한 십대제자가 그 뒤를 잇게 되자 실망한 데바닷다는 자신을 후원할 세력으로 아사세를 마음에 둔다. 그리고 아사세에게 지난 과거를 들려주어 왕위찬탈사건의 배후가 되었다. 부처님의 후원세력인 빔비사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 아사세의 왕사(王師)가 되기 위해서다. 그동안 아사세는 훌륭하게 장성했고 마음도 비단결처럼 고왔다. 그런 아사세에게 데바닷다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말하며 아버지 빔비사라가 너를 죽이려 했다고 하자 잠자고 있던 원한이 일어나 아버지를 잡아 일곱 겹으로 된 감옥에 가두며 왕위 찬탈을 감행한다. 어머니 위제희는 비통한 마음으로 왕을 면회를 갔다가 굶겨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장신구와 온 몸에 먹을 것을 바르고 담아가지고 면회를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되어 결국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그도 그럴밖에, 왕위를 내려놓으니 격무에 시달릴 일 없고, 음식도 절식하니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어 몸이 청량해진 것이 아사세를 분노케 했다.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졸지에 자식의 손에 이 같이 되니 부끄러움에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이 계신 영축산을 바라보며 간청한다. 나의 친구 목련존자를 보내달라, 그에게 8계를 받고 싶다고 하자 부처님은 신통이 있는 목련을 보내 계를 받게 하고, 부루나를 보내 21일간 설법을 듣게 한다. 위제희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설쳐대는 그 끔찍한 광경이 자꾸 떠올라 옛 선인을 죽여 받는 과보임을 느낄 수 있었다. 위제희는 부처님께 청하여 목련과 아난을 보내달라고 애원한다. 부처님은 목련과 아난을 보내고 뒤 따라 가신다. 위제희는 부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감동하여 엎드려 눈물만 흘렸다. 정신 차리고 보니 부처님 계신 곳이라 감옥임에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신들이 보호하고 있었다.

위제희는 사람을 죽여 자식을 얻은 악업을 뉘우치며 이제 머지않아 여기서 죽을텐데 다음 세상에선 이런 고통 속에 살기 싫다고 한다. 행복만이 넘치는 세상이 있기는 하냐고 하면서 있으면 보여달라고 한다. 부처님은 위제희를 위해 미간의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아 수 없이 많은 정토(淨土)를 보여주며 그 중에서 맘에 드는 정토를 고르라고 한다.

"거룩하신 부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든 세계는 다 청정하고 이를 데 없이 광명으로 넘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가 너무 맘에 듭니다. 저 거기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가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부디 자비를 내리시어 가르쳐주소서!"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초발심자 이끄는 새로운 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㉖ 성공의 로드맵

우리나라 불자는 수행하면 으레 간화선 수행을 연상합니다. 간화선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 중국의 대혜 종고 스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수행법인데, 그 뿌리는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습니다. 조사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말씀처럼 마음 닦아 밝아지는 핵심을 곧바로 집어내는 수행을 통하여 한달음에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돈적(頓的) 수행법입니다.

간화선은 초발심 때에는 지극한 참회도 하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성심껏 지니기도 하지만, 화두 참구로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 참회할 죄나 지켜야 할 계가 본래 없음을 깨닫고는 점수(漸修, 점차 깨닫는 수행)의 체계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경지로 단숨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위 돈적 수행은 한달음에 부처가 되는 수행이기에, 수행 중 별다른 역경 없이 부처님 세계에 진입하는 최상근기 불자에게는 별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을 만나게 되는 중하근기 불자들이 간화선 수행을 할 경우에, 이러한 역경에 대한 처방이나 지침을 찾을 수 없어, 자칫 잘못하면 일생을 방황하다 변변한 깨달음도 얻지 못하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화선과 같은 돈적(頓的) 수행의 경우 종종 그 수행 과정이 생략되고 수행의 로드맵(road map)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선지식이 이끌어주지 않는 수행이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수행은, 비유하면 전등 없이 밤길을 걷는 사람처럼 시간만 헛되이 보내고 방황하는 수행이 되기 쉽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강경 16분은 이러한 수도자들이 헤매지 않게 하는 지침이 됩니다.

즉 어떤 수행이든 밝아지고자 하는 수행을 16분의 말씀 중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에 비유할 수 있으며, 수행을 할 때 맞닥뜨리는 여러 역경을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화선 같이 수행의 로드맵이 밝혀지지 않는 돈적 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각종 역경이 일어나는 경우에,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낙심하여 공부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수행의 마음을 지속할 수 있다면, 즉 역경에서도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전생에 지은 각종 죄업이 하나하나 제거되며 머지않아 각종 역경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드디어 선세의 죄업이 소멸됨과 동시에 역경도 사라지며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밝아지게 되느니라."

이렇게 금강경 16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비록 선지식 없이 혼자 수행하더라도 각종 마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벗어나게 되며, 마침내 견성성불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6분은 수행자에게 수행 중 마장이 일어날 때 훌륭한 지침이며, 수행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로드맵은 수행자가 역경을 극복하고 밝아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일 뿐 아니라, 각종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이 뭣고'

화엄경 사구게에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 오온실종생(五蘊實從生)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상사를 다 그려내며, 오온이 다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그 무엇도 만들어 내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부처, 참나' 는 개념(槪念)이 아니고, 이름(名)이나 모양(色)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言)이나 문자(文字)로 들어 낼수 없는 '텅빈충만, 공적영지(空寂靈智)' 이다.

세상은 명색(名色)으로 존재(存在)하는 것이며, '나' 라는 것도 이름과 모양일 뿐 실체(實體)가 없는 환(幻)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있는 것이며, 망심(妄心)이 없다면 나와 세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도 환일 뿐이다.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라는 말은 즉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의 심은 일체를 그려낸 망심이다.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 은 일체유심조와 같은 뜻으로 마음은 능히 일체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이다.

'오온실종생(五蘊實從生)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 는 오온이 모두 마음따라 나온 것이어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무법이불조(無法而不造)라고 했다. 본무망심(本無妄心)이라,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불성, 불법, 법, 부처, 천지만물(天地萬物)을 비롯해 나(我) 또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동시에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만 마음의 작용인 일체유심조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인 것이다.

"불성, 불법, 부처, 천지만물을 비롯해 나(我) 또한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체유심조' 이기 때문에 동시에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며, 그래서 마음 작용인 '일체유심조' 이다. 이 사실을 그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견성이다"

하늘과 땅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된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의 핵심이다. 마음하나 일으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만들고, 마음으로 이 우주법계(宇宙法界) 모든 세상을 만들어 내며, 마음으로 삼독심(三毒心)을 일으키고 마음으로 삼학(三學)을 닦아간다.

마음으로 번뇌와 집착을 일으켜 육도를 윤회하게 되고, 마음으로 집착을 끊고 해탈(解脫) 열반(涅槃)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음자리 깨치면 텅빈 충만이며, 여여(如如)하고 적적(寂寂)한 부처요, 깨치지 못하면, 두두물물(頭頭物物) 산하대지(山河大地)가 천차만별(千差萬別)로 벌어지는 중생세계(衆生世界)이다.

그러나 중생이든 부처든 그 근본(根本) 성품(性品)은 하나이다.

법계의 성품을 관(觀)하라는 말은 바로 나의 근본을 살피고 나의 참 성품 즉 불성을 체득하라는 말이다. 법계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고, 법계의 근본이 나의 근본이다.

그 관법(觀法)이 '이 뭣고' 이며 번뇌와 집착을 끊어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이 바로 '이 뭣고' 인 것이다.

약인지심행(若人知心行) 보조제세간(普造諸世間) 시인즉견불(是人則見佛) 료불진실성(了佛眞實性)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음미해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모든 세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친견해 부처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다"라는 말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승가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담문의 011-9049-284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 53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 53회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8년 7월 29일 ~ 2018년 8월 18일 (3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양말 · 운동복 · 운동화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일 과 표 〈일과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6:20	아침 공양 (주1회 발우공양)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9:00	원어민 영어 수업/불교 강의	17:10	저녁 공양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8:30	저녁 예불
11:00	108배	19:00	자아성찰 및 참회록 쓰기, 방학 숙제하기
11:40	점심 공양	21:00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일 주 문



수덕사 키즈 산사일기

정묵 예산 수덕사 주지 스님은 7월 27~29일 경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캠프 '키즈(kids) 산사일기'를 개최한다.



52차 내비둬콘서트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8월 11일 오후 7시 경내서 한일 부부 밴드 '파드마'를 초청해 52번째 내비둬콘서트를 개최한다.



화엄사 산문 야간 개방

덕문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8월 20일까지 '지리산 화엄사 여름 산문 야간 개방'을 실시, 밤 10시까지 사찰을 개방한다.



자비의전화 정기총회

가섭 (사)자비의전화 대표이사 스님은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성북구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서 제21차 정기총회를 연다.



2018 한국교수불자대회

심익섭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8월 15~17일 경주일원서 '남북불교 교류와 한국불교중흥'을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양희동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8월 5~8일 경주 황룡원서 '2018 영 부디스트 캠프(Young Buddhist Camp)'를 개최한다.

"생명이 갖는 존귀함 더 많은 이들 깨닫길"

Interview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보현 스님



김지원 수습기자 jayjace@hyunbul.com

법명 '보현'에 담긴 '생명나눔'
개인사 계기로 생명구제 다짐
유튜브로 젊은 불자와 소통한다

"'보현보살'의 또 다른 이름은 '연명보살'입니다. 보현보살서 따온 제 법명 행간에는 이미 '생명나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죽어서 장기기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실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의 소중함만큼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을 바랄 때 진정한 '생명나눔'은 시작됩니다."

1980년대 하이틴스타로 불리며 가수 '이경미'로 활동하다 연예계 생활을 접고 출가한 보현 스님이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선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7월 13일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보현 스님과 걸그룹 써니힐을 위촉했다. 보현 스님은 홍보대사 위촉 후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서 생명나눔의 참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장기기증 ·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생명나눔운동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향후 불우이웃돕기 '따뜻한 정 나누기', 환우돕기 '한다솜음악회' 등 하반기 생명나눔 문화행사에 참석해 생명나눔 실천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보현 스님은 길거리 캐스팅돼 CF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뒤 가수, MC로 활약하다 1986년 돌연 잠적했다. 당시에는 연예인 활동을 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현 스님은 이를 극복하며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이해하게 됐다.

자살기도, 강제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출가 계기가 됐고, 스님이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중생구제 서원을 품는 것으로 이어졌다. 최근 출판,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던 중,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과 인연이 닿아 홍보대사 제안을 수락했다.

"출가 이전의 일들을 되돌아보니,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이들이 부처이고 보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힘든 과거였지만 대중을 구제하고 수행자로서 불법을 빛나게 쓰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예전에 겪은 일들이 결국 지금 제 '생명'까지 이어져 연결돼 있음을 압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보현 스님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청소년 자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공식적인 생명나눔 행사 활동 외에도 스님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부처님마을' 계정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홍보 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처님마을' 계정은 꾸준한 입소문을 타며 구독자 5천명을 앞두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생활명상 '5분 행복명상' '보현스님의 즉문즉답' '강의 콘서트' 등이다.

"유튜브 주 사용층인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나눔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불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로 그들의 괴로움과 힘듦을 함께 나누고 현대화, 맞춤화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선운사-전북과학대학 MOU

학술연구, 템플스테이 등 상호 협력키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와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는 7월 17일 선운사 회의실서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선운사와 전북과학대는 우수학생 유치 및 진학, 학술정보자료 이용, 합동연구 및 인력 교류, 교육 및 학술연구 협력, 템플스테이 문화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웹툰 작가 템플스테이 성료

조계종 포교원 · 불교문화사업단 공동 주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7월 13~14일 양양 낙산사에서 '웹툰 작가 ·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꿈 찾기' '마음 나누기' 등 낙산사의 다양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 동화작가 · 삽화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2차 템플스테이는 9월 15~16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진행된다. **윤호섭 기자**

'행복 전주' 발원한 전주불교계

전주불교연합회, 7월 17일
지역발전 · 화합 위한 법회



혜민 스님과 마음치유학교 봉사단원들이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치료기금 4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난치병 어린이 우리가 돕자"

마음치유학교 봉사단, 400만원 기부

혜민 스님이 설립한 마음치유학교 봉사단이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치료기금을 기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은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 구내식당서 마음치유학교 봉사단 20여 명과 혜민 스님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400만원을 7월 13일 후원했다"고 15일 전했다.

마음치유학교(교장 혜민)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 위로, 치유해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상담심리센터로, 교내 봉사단은 올해 3월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서 봉사활동을 하며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전주불교연합회가 민선7기 당선자를 초청해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전주불교연합회는 7월 17일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민선 제7기 당선자 초청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한 조찬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찬법회에는 연합회 공동대표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해 오종근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 반재상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이정상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전주불교연합회 회원, 김승수 전주시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정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독송 △축복경 봉독 △환영사 △당선자 소개 및 인사말 △축원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축원을 통해 "당선자들이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써서 전주시민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재상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은 축사에서 "당선을 축하한다. 진정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전주불교연합회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들의 믿음으로 당선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주불교연합회와 함께 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더욱 많은 시간을 내어 스님과 불자들과 소통하고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주시가 추진 중인 '천만 그루 더불어 숲 나무심기'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주를 숲속 도시, 정원 도시로 가꾸는데 불자 여러분도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더위 시원한 바람 선물"

부산노인복지관협회, 어르신 위한 선풍기 전달



부산광역시노인복지관협회(회장 선공)는 7월 17일 부산 카톨릭센터 소극장에서 부산시 16구 · 군 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에게 선물할 선풍기 330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풍기는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 초복을 맞아 기증했다. 이에 협회는 부산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선풍기가 없거나 냉방기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어르신 가구에 선풍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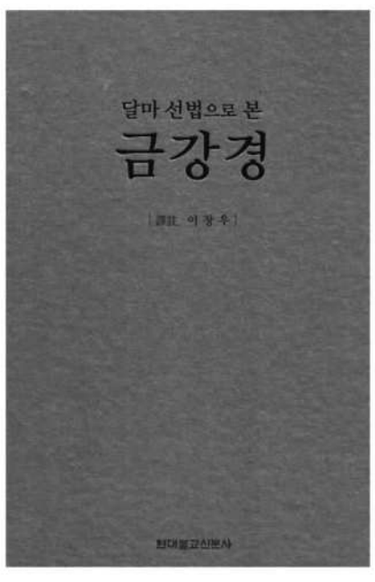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

여시아문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는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 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에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이 개최한 어울림 한마당에서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영·호남 청소년 화합 불교가 이끈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 어울림 한마당 열어

영·호남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청소년에게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회장 박수관)은 7월 13~14일 신라대학교 및 송도 일대에서 '제13회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다. 영·호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은 청소년 교류로 상호간 친밀도를 높이고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여수 충무고와 부산 진여고 학생 240명이 참가했으며 △출범식 △친교의 시간 △장기자랑 △단합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또 부산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송도 해수욕장 관광 방문 및 해상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기회도 제공됐다.

(사)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지금까지 3,000여 명이 넘는 영호남 학생들이 참여해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며 "아직 편견에 물들지 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문화 이질성을 쉽게 수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인 지역 편견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자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무더위 수용생활, 청정생수로 극복을"

해남 대흥사, 해남교도소에 생수 1만병 전달

해남 대흥사(주지 월우)는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7월 17일 해남교도소에 생수 1만병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생수 1만병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해남지회(지회장 이병길)와 함께 혹서기에 300여 명의 재소자들에게 시원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뜻을 같이 모았다.

오후 3시에 열린 전달식에는 월우 스님, 김재익 해남교도소장, 이병길 지회장을 비롯해 김홍길 교정교화위원 등 포교사단 교정교화위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흥사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일 폭염에 몸과 마음이 지친 수용자들이 시원한 청정생수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수용자들이 건강히 수용생활을 마치길 기원했다.

김재익 해남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해준 대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용자들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정교화에 더욱 힘쓰고, 나아가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학생들 좋은 환경서 공부하길"

수진 스님, 동명대에 발전기금 2000만원 쾌척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원했다. 수진 스님은 7월 17일 동명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수진 스님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란다"며 "모두가 각자 장소와 위치에 맞는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곧 애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진 스님은 동명대 세계선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대학생에게 참선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어로 만나는 대혜 종고의 〈서장〉

불전영어연구소, 〈A Manual of Zen〉 출판기념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종고 스님의 편지글 〈서장〉이 영어로 번역 출판됐다. 불전영어연구소 호법 스님과 공동 번역자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S.B Hettiaratchi) 박사는 번역서 〈A Manual of Zen〉을 부처님전에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불전영어연구소(소장 호법)는 7월 16일 불전영어연구소 법당에서 〈서장〉 영역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출판기념회는 발원사 부설 불전영어연구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일군 결과인 〈서장〉 번역서를 부처님께 봉정하고, 관심 가져준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불전영어연구소는 참가 대중에게 책을 나누고 아울러 책 100부를 조계종 포교원에 기증해 세계에 널리 부처님 말씀을 알리겠다고 서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 정각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박대성 前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철훈 영도구청장, 백평효 영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행사는 연구소와 연구소 프로그램 소개로 시작해 번역자 호법 스님과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 박사의 소개 및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호법 스님은 불전영어연구소를 2016년 10월 부산 영도에 개설하고 경전과 불서를 영어로 번역해 한국불교가 세계와 소통하도록 앞장서고 있다. 스리랑카 팔리 불교대학, 태국 마하출라롱콘대학에서 수학했으며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 방문 교수를 맡고 있다.

호법 스님과 해찌아라지 박사
국내 최초 〈서장〉 영어 번역
7월 16일 연구소 법당서 봉정
책 100부 조계종 포교원 기증

시리 반다 해찌아라지(S.B Hettiaratchi) 박사는 불전영어연구소 수석고문으로 유네스코 스페인·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다. 해찌아라지 박사는 마하출라롱콘대학에서 호법 스님을 지도한 지도교수이기도 하다.

호법 스님은 "〈서장〉 번역은 연구소 개설 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노력한 결과물이다. 간화선 불교를 전하기 위해선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간화선을 경험하고 참선,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가능하다"며 "조계종단의 종도로서 큰스님의 은혜로 선을 익힌 결과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전영어연구소장 호법 스님이 부처님전에 〈서장〉 번역서 〈A Manual of Zen〉을 봉정하고 있다.

이후 부산대 김용환 교수의 서평과 격려사 및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의 법문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대혜 종고 선사의 〈서장〉은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글 65개를 모은 책으로 간화선의 교과서이자 지침서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불리며 직지인심, 즉 곧장 마음을 가리켜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번역됐으며 합리적 세계관을 가진 서양 영어권에는 설명이 어렵고 번역된 예가 드물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번역서 〈A Manual of Zen〉은 특별한 추가 설명보단 성실하게 번역해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편지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학문적 근거를 위한 색인 및 각주가 빠짐없이 추가돼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호법 스님은 "대혜 종고 스님이 전하신 말씀 그대로 원형을 담도록 노력했다. 진리의 세계를 깨달은 큰스님이셔서 간화선 공부 경험이 없는 분이 접하기엔 이해가 어렵다"며 "하지만 외국인들의 간화선 수행 관심이 늘어나 꼭 필요한 교재이며 간화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번역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영어불전연구소는 석가모니 일대기를 바르게 소개하는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번역서 〈A Manual of Zen〉은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 e-book을 통해서도 구입 가능하다.

문화포교 독려하는 '일일찻집'

부산불교교육대학 7월 12일
문화동아리 기금 마련코자

향기로운 차향과 다채로운 문화의 장으로 불교문화포교를 후원하고 하나 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7월 12일 문화동아리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부산불교교육대학 내 여래정사에서 개최했다. 일일찻집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활동하는 문화동아리 수화봉사단, 다도반, 환희지 합창단, 사물놀이패를 지원하고 봉사 및 포교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울러 일일찻집은 부산불교교육대학 내 여래정사 법당 증축을 축하하며 처음으로 여래정사에서 개최한 일일찻집이기에 의미가 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문화동아리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이 개최됐다. 개원식에서 내빈들이 기념테이프 커팅을 하는 모습.

개원식에는 학장 범혜 스님 및 화엄승가회 자관·효문·대각·태산 스님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후 판소리 공연 및 사물놀이, 환희지 합창단의 음성공양 무대가 펼쳐져 큰 박수를 받았다.

범혜 스님은 "매년 일일찻집을 열어 동아리 봉사 및 포교 활동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의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문화포교를 방침으로 더욱 다양한 기획을 구상하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문화포교를 위해 색다른 강의, 풍류대금반, 판소리반, 힐링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강의를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입학식은 9월 6일 오후 7시이며 강의는 6개월간 진행된다.

범혜 스님은 "맑고 깊은 소리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전통 한국문화를 깊이 알 수 있는 강의를 마련했다"며 "또한 힐링 연극반에서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7월 11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는 부산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41년 전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 창립됐다. 범혜 스님은 '자살 및 교통사고 없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캠페인 및 '사랑의 연탄나누기' 등 밝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공고

- 사찰명 : 법계사
- 주 지 : 혜강
- 주 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1길 7-10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소래정사
- 주 지 : 청화
- 주 소 : 전남 보성군 조성면 신월리 상신 19-2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실제는 내가 죽지 않고 항상 여기서 법을 설한다.

– 법구경 –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동이민간의술학회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각종 고질병 치유 전문 도량

전문치유사 교육생모집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263-46 (북가현리 8-1)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 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꿈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기도의 신 대주스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대한불교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청정한 제주에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갈 비구스님 모십니다

010-3516-6375

(문자로 남겨주세요)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4시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인생상담 능력있는 비구,비구니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기도 하실 분 수행 하실 분 요양 하실 분

청풍호반 성불사(법계선원)

043-644-4366
010-5485-4080

65세이상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전남 광양)

010-2803-2560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북)

010-2078-959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양평)

010-7779-7711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 법구경 -



양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 법당. 요사채. 토지 1,200㎡
- 주변 산사찰. 기도 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2억 8천만원(토지값정도로)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논산사찰(급)안내
- 마을기도도량.토지 400㎡
- 목조 한옥 법당. 요사채. 삼성각
- 운영잘됨. 위치좋음. 건물4동
- 스님사정으로 타지방 불사
- 양도가액 : 1억2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50평 ◎ 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인법당 : 약 60평
◎ 요사 : 7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11억 3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허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1억 3천

010-3124-395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5천세대 부근
- 가액: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읍내 거리 5분
- 부지 : 약 1,700평. 가액 : 14억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돌탑 높이 9m30 둘레 13m 돌탑 108개, 요사체 2동 정자각 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 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문의 :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 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평수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 통화 희망시간 : 오시, 6시 이후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6억(융자 5억 5천 안고 11억)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5번출구에서 5분거리
- 평수 : 2층 상가건물 약30평
- 교통 위치 좋음
- 보증금 1000만원,월50만원 시설비일체 1000만원 (가격절충)

010-8887-9894

임법당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소백산 앞 개울끼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스님 원함
- 불기일체,집기일부,수도,전기,보일러 유
- 벽돌연와 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총 평수 714평
- 스님 사정으로 양도. 2억2천

주인직 : 010-4747-3468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사 찰 안 내
- 호미곶 대보리 최고요지
- 대지 : 약 200평
- 2층건물 옥상 해수관음 설치 7자
- 바다 조망권 최상
- 태양광 설치, 전기 절약
- 업자 펜션 전용가능
- 몽땅 : 4억 3천
- 비구니스님 적격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선산에 법당 건립 관계로..

010-7441-2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동울산 시장 옆
- 2층 50평
- 칠보 삼존불, 천수천안, 호신불 617불 등 320등
- 원목3단 수미단,신중단,영단
- 주택,아파트,상가,시장,인구밀접지역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 전화주시면 법당 사진 보내드립니다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8424-004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토 굴 안 내
- 위치: 신림 IC 15분
- 넓은 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로변
- 4층 건물 4층 약 80평 (엘레베이터)
- 시설 : A급
- 구조 : 법당, 방사1, 상담실, 주방, 화장실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방문 후에 상호 결정

010-2270-6611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두리 마을 위 산밑 사찰
- 대지 : 420여평
- 건물 : 극락전 목조 30평, 요사 60평, 30평, 창고 3개
- 법당,후원 모든 기물은 인계함
- 가액 : 10억 5,000만원
- 사정상 양도함

010-5141-5367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 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맞은편 (아미타 삼존불)
- 건평 : 약45평(상가건물3층)
- 가액 : 전,1천만원 시설비 1천만원,월세30만원
- 법당 양호합니다

010-3590-5758

사찰 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010-4953-1728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 격 : ~~10만원~~ ▶ 90,000원
주 문 : 02)2004-8216
입 금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연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사찰전문 사이트 개설
사찰전용 esachal.net 을 개설했습니다.
무료로 사찰매매/임대/매입/임차 사찰구인구직 중고물품 등을 맘껏 홍보해 보세요.
e사찰넷
010-6838-314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 3, 화장실 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500만원, 월30만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2천만원

010-9735-803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용학로)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 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 : 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7536-2588

포교당(주택)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법당(삼존불)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048-4229

도심속 작은사찰 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5325-30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 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602-9661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양군 마천면
- 작은 암자터 계획 관리지역 360평
- 측량, 배수공사 완료, 토목 공사 진행중
- 소임자리 관계로 급양도
- 가액 : 상담후 결정

010-4162-2900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770-2 허가06-2231
공인중개사(중개안내)
- 전국사찰(터) + 암자 + 포교당 + 기도원
- 거래 성실(비밀) 중개로 오랜 경력 신용 쌓았습니다
- 살분 = 팔분 편안히 상담 바랍니다

010-3570-0025

상가주택 포교원(급)안내
- 투자가치도 좋음, 급 양도. 포교원 3층 건물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주변환경, 전북경찰청, 도청, 아파트, 상가, 주택 밀집지역, 공원, 천변산책로
- 대지 61평, 뒷마당 있음, 건평 90평, 각 30평 3층 건물
- 1층 방3개,해우소/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소불300불, 연등700,인등,영가인등,해우소/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 외부, 내부 뼈대 외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
-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1천만원 (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버려진 동물의 마지막 보금자리

유기견 등 키우는 태국사찰
일명 '마 왓(maa wat)' 인기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국가인 태국의 곳곳에 '마 왓(maa wat)'이라고 불리는 절들이 많다. '마 왓'이란 태국어로 '개가 사는 절'이라는 뜻. 태국의 절마다 개들이 가득한 이유를 7월 14일 일본의 '니프티 뉴스'가 소개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은 불교의 선·악업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특히 살생에 대한 악업을 강하게 믿는다. 또 인간과 가까운 동물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속설이 있어 반려동물을 매우 아끼고 돌본다.

그렇기에 부득이 반려동물과 헤어져야할 때는 거리에 두는 것보다 사찰에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거리에 놓아주었다가 사고로 죽거나 병에 걸리면 원래 주인에게 큰 악업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절에 버려진 개들을 다시 버릴 수도 없기에, 사찰의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돌보면서 '마 왓'들이 탄생했다.

방콕에 소재한 한 마 왓의 스님은 "율장에 출가자들은 하루 한 끼만을 먹고, 남는 음식은 땅에 묻으라고 한다. 하지만 개들이 생기면서 남는 음식을 먹이로 주고 있다. 개들 덕에 남는 음식으로 보시행을 실천하게 됐다"며 웃었다.



스님들 주위에서 놀고 있는 개들. 사진출처=더 네이션 타일랜드

살생 따른 악업 믿는 태국
거리에 동물 놓아주기보다
사찰에 풀어주는 일 잦아
코끼리 등 키우는 사찰도

이 스님은 또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가도 지역주민분들이 마 왓에서 온 스님에겐 일부러 음식을 더 보시하시곤 한다"며 지역주민 역시 개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참배를 오는 주민들 중엔 사료나 먹이를 들고 오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마 왓에 참배를 온 한 신자는 "버려지는 개들 중엔 '잘 짖는다'거나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개들이 많다. 그런데 인욕과 자비를 수행하는 스님들이 밥을 챙겨주며 보살피면 개들의 성격이 바뀐다"며 "개의 성격이 바뀐 소식을 듣고 원 주인이 데려가도 곧바로 절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개들이 스님들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 신자는 "절의 개를 키우면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 오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마 왓에서 강아지를 데려가곤 한다. 절의 개들은 사람을 잘 따르고, 성격이 온순해서 모두가 좋아한다"고 전했다.

마 왓의 개들에 대한 인식은 이미 태국 전체에 일반적으로 퍼져있다. 보통 태국의 속어나 유행가에도 '절의 개' '마 왓'이라는 이름은 게으른 사람이나 사정이 딱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절에 사는 개들이 하루 종일 자고, 그늘에서 늘어져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태국에서는 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보살피는 사찰들이 존재한다. 보통은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돌보지만 코끼리나 호랑이 등을 보살피는 절들도 있다. 특히 코끼리들은 공연이나 목재 운반 등의 노동을 하다가 늙어서 오갈 데가 없는 코끼리들이다. 보통 이러한 동물들은 동물보호단체나 원래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사찰에 오게 된다. 또 뱀이나 쥐를 돌보는 절들도 있다. 태국 사람들은 이러한 동물들은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기에 더욱 참배자를 모은다.



티베트인 무슬림들과 대화 중인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달라이라마, 이슬람 공동체 만나다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와 평화 기원

지난 7월 14일 '더 티베트 포스트'는 티베트불교의 지도자 14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7월 13일 달라이라마는 북인도 잠무-카쉬미르 주의 누브라 지방을 방문, 현지의 티베트인 무슬림 공동체와 만났다. 이들은 5대 달라이라마 시절 라싸에 정착한 무슬림들의 후손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 중앙티베트에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왔으나 공산정권의 박해를 피해 누브라 지방으로 옮겨왔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를 떠난 망명지에서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그 자손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밝히면서 "최근 라닥 지방을 방문했을 때 이슬람의 두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지역 지도자들을 함께 만났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인도에서 수니와 시아간 분쟁 없이 조화를 이뤄 살고 있는 모습은 현대의 많은 종교인들에게 사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달라이라마는 새롭게 완공된 이슬람 사원인 디스켓 자마 마스지드를 방문, 무슬림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했다. 여기서도 달라이라마는 무슬림 원로 지도자들과 회동을 하고, "모든 종교들은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사회와 대중이 실수를 할지라도, 종교지도자들이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 3일부터 잠무-카쉬미르주를 방문, 현지의 불교사원들을 방문하며 법회를 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마트폰으로 본 불교성지 순례길

퀸즈랜드대 제니퍼 로우, 그래픽 지도 분석

성지 주변 원형 산책로 등
순례 대중 인기 실감케 해

달리기 코스를 소개하는 히트 맵(heat map) 애플리케이션 '스트라바(Strava)'에서 불교 순례길의 몇 가지 법칙이 발견됐다. 퀸즈랜드대학의 박사학위자 제니퍼 로우(Jennifer Rowe)에 의해서다. 로우는 지난 1월 스트라바에서 실수로 미군 비밀 군사기지가 노출돼 혼란이 일었을 때, 이를 유심히 보던 중 불교 성지 주변의 특별한 법칙을 발견했다.

불교언론 '라이언스로어'는 7월 12일 "로우가 '스트라바'에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다"며 "바로 불교 성지 주변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경로"라고 말했다.

로우가 스트라바에서 이 같은 법칙을 발견할 수 있던 것은 히트 맵의 특성 때문이다. 히트 맵은 '열'을 뜻하는 히트와 '지도'를 뜻하는 맵을 결합시킨 단어로, 일정한 이미지 위에서 열 분포 형태에 따라 그래픽으로 나타낸 지도다. 스트라바 등 그래픽 활용 앱에서는 방문자의 마우스 클릭을 열분포 형태의 이미지로 변환, 클릭이 많이 발생한 장소일수록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로우의 연구는 티베트인의 경험과 그들 문화 보존에 집중한다. 로우는 함께 일하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인도·네팔·티베트 등 불교 성지에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불교 성지들이 스트라바 지도에 붉게 노출될지 아닐지 궁금해 했다.

전통적으로 불교도들은 성지 주변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신앙심을 표한다. 종종 명상의 형태로 순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삶의 윤회에 집중하며,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 이끄는 팔정도(八正道)를 걷는다. 순례는 대부분 부도탑, 불상, 사원, 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로우의 분석에도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전세계적 불교 성지 주변으로 원형의 순례길이 포착됐다. 특히 로우는 불교 성지 주변을 따라 중심으로 이르는 산책로가 형성된 점도 발견했다.



그래픽 지도 앱 스트라바(사진 오른쪽)에서 티베트 라싸 지역의 조캉 사원 주변으로 1km 가량의 산책로가 포착된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이와 관련 라이언스로어는 로우의 분석과 함께 스트라바 지도 속 티베트·네팔 등 불교 국가의 대표적 성지 주변을 공개했다.

티베트 라싸 지역에서 불교도들은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간주되는 조캉(Jokhang) 사원을 순례한다. 이 사원 주변으로 약 1km 코스의 좁은 산책로가 형성돼 있다. 티베트의 또 다른 불교 성지, 카일라쉬더산은 그 주변으로 원형 형태의 코스가 나타나 있다. 이는 해마다 수천 명의 불교도들이 이곳을 순례하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밖에 네팔 최대 불교 성지 보드나트 스투파를 비롯해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사원인 남걀 사원, 부탄의 탁상 사원, 부탄의 팀푸 포르텐 등에서도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中 불교소재 영화 3일 만에 종영

'아수라' 초반 흥행 참패… 제작사 "수정 거쳐 재개봉"

중국 영화사상 최대 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아수라'가 개봉 3일 만인 지난 7월 15일(현지시간) 스크린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제작사 측의 공식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초기 흥행 실패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 '아수라' 제작사 쩐찌엔 필름 스튜디오 측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6년 동안 본 영화에 참여한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에 숭고한 경의를 표시한다. 투자자 전원 결정을 거쳐 베이징에서 일요일 저녁을 마지막으로 상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갑작스런 폐막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화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재개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아수라'는 불교를 소재로 한 판타지 서사 작품이다. 티베트 고대 불교신화에 근거해 축생계·아귀계·지옥계 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연을 맡은 중국의 '라이징 스타' 오뤼를 비롯해 홍콩 배우 양조위·유가령 부부 등이 출연해 제작 발표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흥행 참패였다.

'할리우드 리포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 '아수라'의 평점은 6.4점(10점 만점)대에 그친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3.1점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너무 졸리다" 등 혹평을 쏟아냈고, 일부 높은 평점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리포트' 등 외신은 1억1000만 달러(한화 약 1260억 원) 이상의 제작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지난 13일 개봉한 후 주말 동안 단 710만 달러(한화 약 84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초반 흥행에 참패한 것을 가장 큰 종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아수라 투자자들은 일부 경쟁 세력의 '방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상대방에게 마음 옮길 때 자비심 커져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4) 수행현상과 내 마음 보기

비(悲)–연민

베풀어 사랑을 키우면 행복이 넘치는 자애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이 사랑의 마음이 토대가 되어 연민은 자라게 된다. 마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씨앗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물을 주고 연민의 씨앗을 심으면, 연민은 빠르게 그리고 별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다.

연민의 바탕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괴로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연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지겠다는 좋은 생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밤새워 간호하고 자식이 아픔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슬픔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애(哀)와 비(悲)이다. 애(哀)는 소유할 수 없어 슬퍼하는 것이므로, 소유욕이 슬픔의 근원이라 여기서 벗어나려면 욕망을 버려야 한다. 비(悲)는 상대의 슬픔과 비탄을 같이 나누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모든 존재는 바탕이 공(空)하여 평등하고 가능성의 존재이므로 범부에서 성인으로, 중생에서 부처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는 연민심이 될 수 없고 비가 연민심이 되는데 그 속성은 무아이다.

연민심은 중생들의 고통을 빼앗아버리려는 특성이 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는 중생을 괴롭히지 않으려는 선한 마음의 표출이다. 그래서 연민심은 괴롭히려는 습성이 많은 이가 깨끗해지는 원인이 된다.

연민심은 상대를 괴롭히려고 화를 내는 성질이 사라지게 한다. 화냄이 사라졌다면 이는 곧 '연민심을 구족함' 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걱정, 번뇌, 슬픔이 생긴다면 이는 곧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는 모두 5욕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슬픔이란 무엇일까? 5욕을 추구하여 소유할 수 있는 즐거움과 그 물질적인 대상을 얻지 못해 계속하여 그것에 연연하고 집착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마음과 함께 슬픔이 생겨난다. 또한 전에 얻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잃어버린 대상에 연연하여 끊임없이 거듭거듭 생각하는 이들에게 쓰리고 아픈 마음과 함께 슬픔이 생겨난다. 그러한 불편함과 슬픔을 5욕의 즐거움에 의지한 슬픔이라고 한다. 이러한 5욕락에 의지한 슬픔은 연민심과 아주 가까운 적이 된다.

먼 적은 연민심의 성품과 다른, 괴롭히려는 성품이다. 그래서 먼 적인 괴롭히려는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연민심을 키워야 한다. 연민심을 무너뜨리는 가까운 적과 먼 적을 상대하여 도리어 연민심을 일으키고 키우면, 5욕에 의해 일어나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상대를 괴롭히려는 적들이 없어진다.

연민의 바탕은 타인 위한 관심
哀 아닌 悲로써 슬픔 나눌 때
부정적 과거 없애고 짐 덜어내
결국 자비심에 보리심 이어져

연민심을 생기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선, 연민심을 키우는 사유가 필요하고 연민심이 생기면 이로써 연민심을 키우는 명상을 한다. 먼저 미워하는 상대부터 소통하여 상대의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다. 특히 이를 서로 원한으로 맺힌 것을 해소하는 연민심 명상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으로 고통에 처한 이에게→그 다음 좋아하는 이에게→그 다음 자기에게 연민심을 키울 것을 생각한다.

원결을 맺은 사람에게 연민심을 가지는 명상은 모든 생명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실천하게 한다. 그래서 연민은 부정적인 모든 과거를 녹이고 없애는 약이고 바른 깨달음의 유일한 뿌리이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연민은 원결을 맺은 원수나 적이라고 해도 그들을 무엇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 생각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바뀌게 한다.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연민이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연민에 의해 인내와 관용이 생기면 분노와 증오라는 무거운 짐이 절로 덜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이다.

자비심 일으키는 思慧명상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때는 자비심을 키우는 사유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방법은 첫째, 서로가 평등함을 생각하고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를 이해하기이다. 즉,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이다' 라고 자타를 교환하여 생각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상대가 나를 정신적 성숙을 주는 스승이고 부모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사유하게 되면 자심(慈心)의 사랑과 비심(悲心)의 연민이 커진다.

첫째, 너와 나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복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누구나 같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차별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평등은 공성이므로 이 자리는 자타가 없다. 이 공성의 '평등'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모든 번뇌는 사라진다. 또한 증오와 집착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평등심으로 평정상태와 비교하여 사유한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가를 살피고 평등일미의 공성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수행으로 마음속의 괴로움을 없애고 상대에 대한 자비심을 키운다.

둘째, 평등하다는 생각을 할 때 이미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상대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나' 라는 생각에 가려서 상대편의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알아차림 하면서 '내가 상대가 되고 상대가 내가 되어'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편이 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유한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왜 비난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연민심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이해가 생길 때 '마음이 편안한가' 를 살핀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차별심을 없앨 수 있고 평등심을 유지시키면서 상대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게 된다.

셋째, 만일에 이해가 일어나지 않고 연민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나를 가르쳐 주고 성숙시켜 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는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 전생에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면 도리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평등심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자비심을 키우게 된다.

이상 자비를 일으키는 세 가지를 처음에는 하나하나 사유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연속적으로 사유하여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또 다른 이와 관련시켜 자비심을 일으킨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 즉 부모 형제→가족 전체, 친구나 친족 다수→스승→한 마을, 한 도시, 한 국가, 지구 전체,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하는 자비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사유 통찰한다.

이렇게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자기중심에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이 자비심이 원인이 되어 보리심이 일어난다. 이 보리심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열망과 공성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염원인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慈心을 일으키는 修慧명상

생명은 어머니이고 자비임을 사유했다면 자심의 사랑을 일깨우고 키우는 명상을 한다. 사랑을 키울 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매우 좋아하는 이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이 △원수나 적, 이 4종류의 사람에게는 사랑을 일으키는 사랑의 감로수 명상을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성의 사람에게 따로 사랑의 감로수명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탐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죽은 이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단 망인(亡人)이 돌아가시기 전에 맺힌 것이 있다면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서 맺힌 것을 푸는 것은 가능하다.

▶자기를 초대해 자심 불러오기

먼저 자기 자신을 초대하여 자심(慈心)의 힘을 일으키고 키운다. 우선 편안하게 앉아 호흡을 내쉬고 들이쉴 때 몸에 힘을 빼고 허리는 쭉 펴준다. 시선을 코 끝에 10여초 둔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상상한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는 방문을 마주하고 앉는다. 그리고 자기 머리위로 감로수를 온 몸을 샤워하듯 부어준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자기에게 대화하듯이 말을 한다. 그리고 '이 감로수로 인하여 몸의 고통과 정신적 고뇌에서 벗어나 늘 행복하고 평안하소서' 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기억과 심상을 활용하여 자심의 사랑을 강화한다. 즉,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질병에 걸려 수술하거나 또는 고난을 겪은 것을 잠깐 동안 상상해 본다. 그리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계속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 자심의 사랑이 발현될 때까지 이러한 말과 생각과 상상을 계속한다.

▶가까운 사람 초대해 자심 키우기

그런 다음,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떠올려 본다.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기원한다. 이렇게 축원하는 동안, 가슴에서 빛이 투과되어 나오면서 그들에게 닿아 고통을 씻어내 주는 자심의 사랑스러운 장면을 상상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고통에 주의를 집중한다. 자신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자심의 사랑에너지가 이들을 포옹하고 아픔을 어루만지고 이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관경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발현된 자심이 이들에게 닿아 빛이 투과하는 관경을 상상해 본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자비를 확장해 본다.

▶불특정 다수인 낯선 사람

그런 다음 낯선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 죽 순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죽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 죽 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실천 하세요
재가불자 내원궁 회향선원에서는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생활하실 재가불자님을 모집 합니다.
내원궁 회향선원 입주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 입니다.
5년 동안 1인 1실 원룸에서 생활하고, 모든 숙식은 내원궁 회향선원에서 제공해 드리며, 5년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즉, 생활 전액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조건입니다.
2인 1실은 보증금은 1억이며, 재가불자에 한하며 스님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많은 문의 및 방문 바랍니다. H·P 017-201-0037
△ 1인 1실 원룸 내부 △
▼ 내원궁 건물
유튜브 : 회향선원 내원궁을 검색하세요



대행 스님

우리가 지금 소를 타고 생활들을 하니 피리를 부는 거죠!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다면 진짜로 뛰는 사람을 믿어라 이겁니다. 발 없는 발로 뛰고, 손 없는 손으로 하고, 모든 거를 두뇌 아닌 누진으로써 안으로 통신을 하고 바깥으로 통신을 해서 모두 작용을 하는 그놈을 믿어라 이거죠. 나는 뛰어봤자 한 걸음밖엔 못 뛰어. 그러나 '진짜 나'는 여기서 미국을 뛸래도 한 걸음이요, 태양계를 뛸래도 한 걸음이요, 은하계를 뛸래도 한 걸음이요, 어느 혹성을 뛸래도 한 걸음밖에 안 되니까, 체가 있는 우리 육신의 걸음 한 걸음과는 아주 천지 차이니까요.

마음! 고놈이 아니라면…, 고놈이라고 한다고 해서 고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또. 고놈도 될 수 있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법신도 될 수 있고, 화신도 될 수 있고 약사도 될 수 있고, 물에 가서는 용신도 될 수 있고 들에 갈 때는 지신도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대로 내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위로도 아래로도, 높게도 낮게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딴 데서 갖다 줍니까, 뺏어 갑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다가 나오는데 남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병난 것은 마음속에서 해결해야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모르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영계성'이라는 것도 대부분 내 몸속의 악업 선업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든지 나를 좋게 해 주려고 그러든지 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끄달려서 돌아가지 말고 속지 마라.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써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다 잠재워라.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 마음으로써 대치를 해라. '모든 거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라.' 하고, 속지 말고 잘 다스리며 나가라." 이거죠.

속는다 하면…,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죠. 수좌들이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이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방울이 나오죠. 이걸 내가 몇 차례씩 얘기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방울이 나오는 거를 '요것도 문수란 놈, 요것도 문수 놈, 요것도 문수 놈!' 아, 이러고 주걱으로 들이쳤다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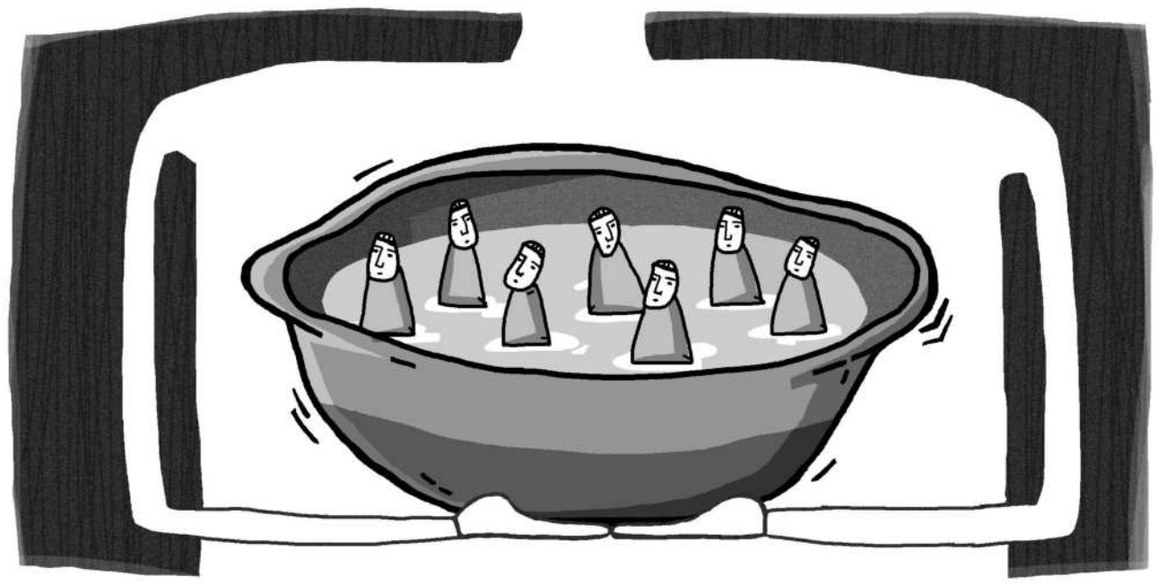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거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다른 수좌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죠. '네 몸속이 즉 팥죽이다. 네 몸뚱이는 팥죽 솥이다.' 그러면 네 몸뚱이 속에서 그렇게 끓어서 나오는 것을, 한군데서 나오는 것을 나오는 대로 각각인 줄 알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를 곧이듣고 자꾸 휘말리니까 '요것도 그놈, 요것도 그놈, 문수란 놈!'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을 내는 거니까 문수거든. 법이거든요. 생각을 내기 이전은 부처지만 생각을 낼 때는 반드시 이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팥죽이 끓어오르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수, 조것도 문수'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니 한 몸 속에서 나오는 그 작용을 어떻게 이것이 따로 있고 저것이 따로 있다고 봅니까. 모두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를요. 그러니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거기다 그냥 되맡겨 놓으면 되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이 됐던 거에다 입력을 다시 하는 게 되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속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가 놓을 때 해결되는 거죠. 또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는 어떠한 물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단 말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 그대로 바닷물이지, 이 물 저 물 섞였다 해서 딴 물이라고 이름 지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 이름이 다른 데서 나오고 행동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행동, 말,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전부 내 몸속의 업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그냥 마음으로 다스려서 거기다 맡겨 놓고, 좋은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놓고, 언짢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고 놓고,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자꾸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무더운 여름에 법형제 여러 법우님들을 위해서 무상 법문을 설해 주시니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항상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큰스님께 말씀드리고 가르침을 받고자 나왔습니다.

요새 시중에 모 스님의 수필집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책의 제목을 대했을 때 순간 생각이 '저승에 갈 때 가지고 가기는 뭘 가지고 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여 분 지나서 집에 오는 도중에 들판에 매어져 있는 염소를 보는 순간 '아,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옥이 따로 없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주인공 자리에 넣고 다시 '아, 바로 이 느낌이 공부가 되는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린 상태에서 시간이 한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세수하러 나왔는데 불현듯 '저승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지?' 하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승도 없는데 무슨 저승이 있어?' 하고 대답을 하고 보니까 제 스스로 '아, 이게 공부가 돼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짜 스스럼없이 튀어나온 말이지만 이 책의 제목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이 공부가 되어 가는 한 과정으로 보아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제가 느낀, 이승이 없기 때문에 저승 또한 없는 것인지, 그런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어 나왔습니다.

큰스님 마음이라는 마음을 요상하게 생각을 해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아주 그렇게, 소탈하고 아주 깨끗하게요. 이승도 없는데 저승이 어딨습니까? 지옥도 없는데 천당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먹고 행하고 사는 데에 바로 지옥도 천당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능치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그렇습니다. 딴 데서 태어납니까? 이 자리에서 태어나시죠? 죽는 것도 이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데에 인과로써 업식만 짊어지고서 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부합이 돼서,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고(苦)라는 소리가 나온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이 주어진 대로 이 현실에 자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천당도 지옥도 바로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없는데 가져갈 것은 어딨으며 가져올 게 어딨습니까?

질문자1(남)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십우도라고 하는, 소 찾는 과정을 가끔 느껴 보고 또 해 보는데요, 큰스님의 법문 중에서 소에 대한 말씀도 가끔 해 주셔서 나름대로 관해 보다가 문득 어느 날인가 소를 탔다는 것도 느껴 봤고 또 소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음속으로 느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느낀 다음 순간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를 탔는데 왜 소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병통이 있느냐? 그 병통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는데 그 뜻이 가슴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서도 소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병통은 어떤 병통인지 궁금해서….

큰스님 소에서 내리면 송장이죠. 하하하…. 아니, 지금 생활들을 하실 때에 소 타고 피리 불고 안 다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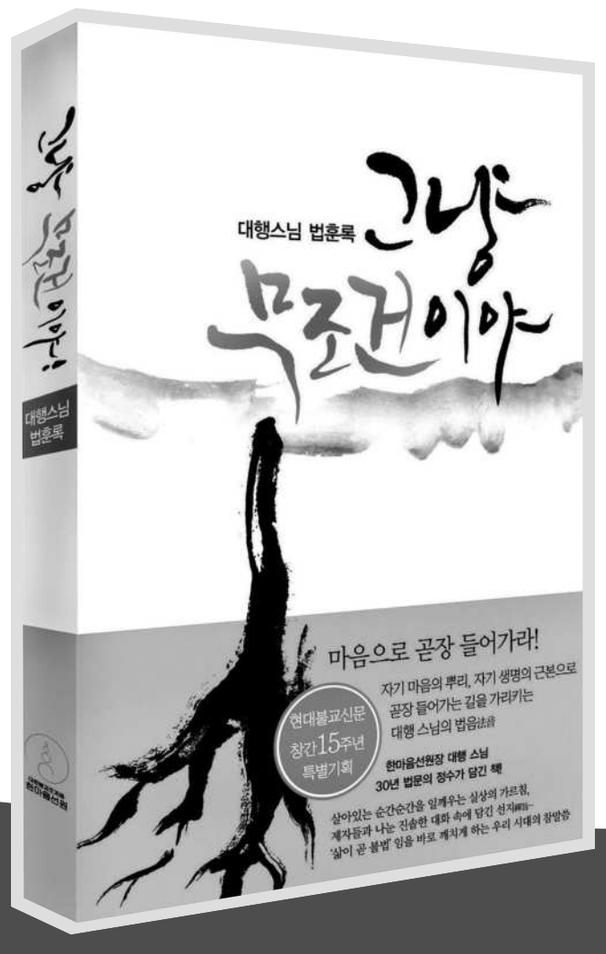
질문자1(남)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큰스님 아니, 지금요, 소는 마음 내기 이전을 뜻하고, 우리가 영혼의 근본이 없으면 지금 송장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해요. 그게 소니까요. 소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를 타고, 얼른 쉽게 말해서 주인공을 타고 생활들을 하고, 말들을 하고, 전달들을 하고 돌아가니 피리를 부는 거죠. 그것이 그냥 화엄경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화엄경이 그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질문자1(남) 그런데 그것을 병통이라고 하는 까닭은….

큰스님 병통이 없으니까 병통이라고 그랬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 네 속에서 해결 해야잖아!

☞ A17면에서 계속

겠죠.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큰스님 모두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과거도 지나갔으니까 묻지 마시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묻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현실에, 내가, 지금' 말입니다.

질문자2(남) 오늘 큰스님께 가르침을 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 세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이 오늘에 와서 과보로 나타날 때 그 과보가 오늘의 나에게 바람직한 일이라면 몰라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깊은 회한에 잠기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놓고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당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하기 마련인데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회한은 짙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일 저 일 궁리하는 것과 놓고 가는 도리는 생활 가운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과거라고 하지만 어저께도 과거고 한 시간 전도 과거고 삼천 년 전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삼천 년 전과 어저께와 한 시간 전이 같습니다. 이게 한 찰나입니다. 내가 항상 구정물을 바꿔 쓰라고 그러죠? 그냥 거기다 놓으란다고 그냥 맡겨 놓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잘 고쳐서 끼워야 될 텐데 기계를 고치지도 않고 그냥 갖다 끼우면 이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고쳐서 끼워야죠, 고장이 난 거는요. 그와 같이 그렇게 다가와서 내 앞에 닥칠 때는 과거든 뭐, 오래 걸렸든 업보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말고 '네 속에서 이렇게 모두 진행한 거니까, 네 속에서 모두 나오게 한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반드시 바꿔서 놓는 겁니다. 바꿔 끼우는 거죠. 바꿔 끼우고 믿어야 되죠. 고놈을 믿어야죠.

안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통신을 하고…, 이 인간에게도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인 마음속에서 모두 분자로, 입자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음파라고 하죠.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무전통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 이것을 판단을…, 판단이라기보다도 법으로 진행을 해 버려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빽이 있는 놈한테 다 맡겨 놔요! 그렇게 바꿔서만 맡겨 놔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너 바꿔 가지고 오너라.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 가지고 오너라." 해야지, 이거를 주고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놔져만 있는 거지, 그게 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정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맑은 물로 대치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놔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하하하….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음공부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성품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성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둘째는 성품을 본 후에도 걸림이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요.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큰스님 이게 여러분이 아리송해서 몰라서 그러시지,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거기서 생각나서 한 것은 후회를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자기 성품 속에서…. 그릇이 작은 데서 나왔든 큰 데서 나왔든, 잘못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잘하는 마음으로 나왔든, 자기가 잘하고 못하고를 모르니까 그냥 그 마음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게 그만 그렇게 잘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땐 '아이구,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럭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알아지는 게 있죠.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앎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못 나왔든 잘 나왔든 그것이 우리 인생관에 의해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즉 말하자면 잘 배우게끔 이끌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잘 생각을 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지 마세요.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움이, 느낀 것이 참 많았다. 경험이 많았다. 그러니 이 경험을 준 것도 참 감사하구나.' 하고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구덩이에 빠지게끔 하지를 않아요. 모를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게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 심안으로 이렇게, 육안을 통해서 보게끔 만들거든요. 심안으로 듣게끔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주, 잘못됨이 없는 그런 진로로 이끌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해라,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그렇게 쓰는 성품이나 이렇게 쓰는 성품이나 성품은 둘이 아니에요. 마음내기 이전은 똑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자기한테 주어지죠. 그런 거를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로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너로 인해서 경험을 얻었으니 감사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 감사하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육안으로 보게끔 하지 말고 심안으로 보게, 네가 보고 네가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 성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악도 거기서 나오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마음요전』과 마음공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전이 간행된 지 한 3개월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신도들이 한 권씩 구입해서 공부에 참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어떤 분은 하루에 몇 구절씩 읽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소에 큰스님의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요전을 보지 않아도 내용을 다 안다, 심지어는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분이 옳고 어느 분이 그르다 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공부 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하는 점이 더 궁금합니다. 평소에 경전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대해야 하며, 특히 『한마음요전』을 어떻게 참구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부처님께서는 사십구 년을 설하셨고 그것을 경전으로 편집해서 냈어도 이날까지도 모두들 그 마음을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움죽거리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로서는 경전을 봐야 옳다, 경전을 안 봐야 옳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는 다 똑같지만, 이 오장육부 속에도 모습들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행도 다르고 모두 다르듯이 이 세상만사의 모든 마음 내는 그릇은, 마음 내는 차원은 천차만별로 다른데 그건 그릇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뿐이지 누가 봐야 옳다, 안 봐야 옳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전을 써 놨어도, 풀이를 해 놨어도 기복으로 풀이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복으로 써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지혜를 넓혀 가고 마음을 계발하려면, 즉 지혜롭게 발전을 하려면 자기가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목차 목차대로 있으니까 자기가 아쉬운 대로 한번 넘겨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면 이름을 몰라서 생각도 안 납니다. 우리 먹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먹어 봤으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길잡이로서 꼭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 자체에서 개선할 게 너무도 많은데 그 책을 만약에 잘 보고 습득해서 넘어간다면…, 그 책은 살아 있는 겁니다.

어떤 돌부처가 말입니다, 옮겨 놓으려고 하니까 꿈에 나타나서 "나는 가기 싫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모셔 놨답니다. 그와 같이 돌 하나도 생명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책에 말입니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다 한마음으로써 다 같이 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진리이자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냥 글귀로 해 놨을 뿐이지 모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마음의 발전이 되면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죠.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날 때는 가차 없이 갖다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응,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데 뭘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글을 외워서 배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외워 가지고 그 외운 거는 다 버리더라도 그 뜻을, "내가 진짜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행을 중용으로 해라. 정신계와 물질계를 중용으로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 그걸 외워서 읽으라고 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읽다 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차 사고가 날 일이 생겨도 읽었던 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데, 이 우주 자체 허공에 말입니다,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떻게 부딪쳐서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몸뚱이나 혹성 자체도 다 대기권에서 통신으로 들일 건 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대치할 건 대치하고, 이렇게 해서 다니게끔 돼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데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득문득 스스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그 책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러는 줄도 알아요. '그 사람은 뭐, 만날 해 봤자 그 말, 그 말, 만날 그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 이러겠지만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백 마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구지 스님은 평생을 그저 손가락 하나만 들었어요. 하하하…. 그거는 왜 그랬을까? 그 의문도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리저리, 이럭저럭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찬 갖춰서. 허허허….

질문자2(남) 참, 더우신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셔야죠.

질문자2(남) 예.

큰스님 그렇게 해서 누굴 줍니까? 자기가 갖는 건데. 하하하…. 또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사회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큰스님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고 끝내죠. 이거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시고)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고정되게 주어져 있지 않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아무개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개 남편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무개 아들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구나! 나는 없으니까 어떠한 업보가 걸릴 것도 없고, 어떤 애고가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구나.' 이런 것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다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만날 되풀이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하하하…. "아, 병 붙을 자리가 있어야 병을 고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즉시로 병 붙을 자리가 없다는 걸,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는 병이 그냥, 가는 중에 나았더래요. 하하하….

주인공을 위로도 아래로도, 높게도 낮게도 보지 말고
그냥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로 생각해도 돼요.
세상에 고놈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위 법문은 1993년 7월 4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현불 논단 |

세계가 놀란 '명상리더십'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태국 동굴소년의 기적적인 생환
수행자 출신 코치 역할이 밑바탕
불안에 떠는 아이들 품에 안으며
명상교육으로 마음 다스리게 해
급박한 상황에도 흥분하지 않고
'愛語'의 미덕으로 생명 살려내
수많은 매체, 명상리더십에 관심
'동사' '사섭법'이 핵심적 요소

얼마 전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의 탐루앙낭논 동굴에서 '무 빠(야생 멧돼지)' 축구 아카데미 소속 유소년 축구선수 12명과 코치가 조난되었다가 구조대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약 2주 만에 전격 구출된 일이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소년들이 추위와 부족한 산소, 그리고 동굴 내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원 생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코치의 명상리더십을 들면서, 수행자 출신인 엑까본 찬따웡(25) 코치의 명상과 마음 다스리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다른 매체들도 자기 마음의 안정을 기반으로 대중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꾸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는 '명상리더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명상리더십의 요소는 많지만 이번 조난 극복 과정은 사섭법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굴에서 아이들을 돌본 엑까뽄 코치의 희생과 지도력에 대해 언급한 군의관은 "음식이 공급된 후 엑까뽄 코치는 아이들이 충분히 식사할 때까지 기다린 뒤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 후 자신은 거의 공복 상태에서 버텼다고 한다.

배고픔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생존의 욕구가 발동하면 자신부터 챙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자신의 먹거리를 오히려 아이들에게 건네며 다독이고 있었다는 것은 보시가 생활화된 명상리더의 본보기이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법보시를 통해 소년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무외시'를 실천한 것이다.

이어서 주목할 점은 소년들의 진술을 토대로 취재한 다음 대목이다.

"엑까뽄 코치는 아이들에게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체내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또 하루 먹을 과자의 양을 정해놓고,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흙탕물 대신 동굴천장에 맺힌 맑은 물을 마시라고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코치의 대화 기술이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필요한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팀원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 '애어'는 "거칠거나 성내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로 대중들을 이끄는 것"을 말하는데 어둠 속에서 온화한 말로 전달한 코치의 그 항목들이 모두를 살 수 있게 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깜깜해 밤낮을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3일째쯤 됐을 때부터 배고픔을 견디기 어려워 일부는 소리 내 울기도 했다. 엑까뽄 코치는 이런 아이들을 안아주며 안심시켰고,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잠이 들 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치료 기법 중 '안아주기'의 효과는 매우 깊고 크다. 엄마의 안아주기는 사랑을 내재화하여 아이를 성장시키고, 가정의 안아주기는 사회성을 내재화하여 관계를 성숙시킨다. 코치의 안아줌은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인 '이행'의 끝판왕이다. 덕분에 차츰 안정을 찾은 소년들은 좁은 공간에서 체온을 유지했고, 결국 생사의 기로에서 삶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지난 12일 작전명 '멧돼지를 집으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것을 보며 명상리더십의 요소인 '동사'와 사섭법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다. '동사'는 명상리더십의 화신인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이 분명하고, 사섭법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하는 명상리더의 반야용선임에 틀림없다고 말이다.

특별기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불교계 언론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어 중립적인 매체인 '현대불교'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며 본지에 기고문을 보내왔다. 설악무산 스님의 49재를 즈음해 현재 불교계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글의 일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마지막 희망 불씨를 붙잡아 주세요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장

초복 지나는 칠월 하늘에 한 자락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스님 49재 있었던 신흥사 건너편 산봉우리에는 다비식 감싼 솜털 같은 구름들 찬란한 군무 펼치고 있었겠지요.

불교계와의 인연이 넓지도 깊지도 않은 제게 스님과의 인연은 불교를 넘어서 시와 삶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었습니다.

스승 가산지관스님과의 인연 이후, 어쩌면 두 번째로 제게 주어진 '스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로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불교평론〉 발행인과 편집위원이라는 관계로 시작된 우리 인연은 매해 정초에 세배를 올리거나 스님의 드문 서울 나들이길에 맞춰 이루어지는 짧은 만남 정도로 이어졌지만, 가끔씩 펼쳐보는 〈아득한 성자〉 속 벼락같은 시어들이 스미는 가르침으로 자주 뵙고 있다는 느낌을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정초에는 편집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아 뵙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주신 '어느 날 문득 눈 들어보니/ 사방이 천 길 낭떠러지인 절벽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실존적인 화두(話頭)로 제게 내내 살아 있습니다.

스님! 지켜보고 계신지요? 지금 조계종단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88세의 설조 노스님께서 종단의 변화를 사자후처럼 외치며 벌써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종단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스님들의 범계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습니다.

스님 평소 말씀처럼 2천년 가까이 살아낸 고목 중 고목인 우리불교가 겪어야 하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목이 나무라는 이름을 유지하려면 새해가 되면 파란 싹을 키워내는 힘을 보여주어야만 하는데, 과연 그런 싹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 죽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만 주변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등불을 설조 스님께서 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희망의 싹들이 우리 사부대중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스님께 결제나 해제법어를 들은 이 땅의 수좌들과, 선시(禪詩)를 통해 일상의 파고 넘어설 수 있는 기운을 얻은 재가자들이 희망입니다.

부디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 자리 잡아 쉽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 싹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스님과의 범상치 않은 인연, 49재라는 계기 맞아 겨우 되새기는 저의 불민함 또한 따스한 손잡음으로 흔쾌히 받아주실 것 같은 날이 시나브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필진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社說

어린이 포교, 부산 불교계를 롤모델로

오랜 세월 '할머니의 종교'라는 오명을 안은 채 포교를 해온 불교계가 최근 '눈높이 포교'를 통해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아직 이웃종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천진불 포교 활성화를 위한 키워드를 발견한 셈이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통도사 어린이법회다. 통도사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문화재지킴이' 봉사활동을 제외하면 순수 어린이법회 참석 아동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통도사가 7월 한 달에만 벌써 48명의 어린이가 법회에 참석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숫자다.

통도사는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해 '숲 체험 명상놀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숲예술창의력사업단과의 협약을 통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대안 교육을 제시해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범어사 역시 청소년진흥센터와 부산외국어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며 사찰에서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다른 사찰들의 어린이합창단과 스포츠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다만 현재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사찰 움직임이 부산과 영남권에 집중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부모들은 사찰의 변화를 적극 반긴다. 그간 밋밋한 사찰의 일반법회에 아이들을 데려가기 힘들고, 특별히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없어 부모 스스로도 사찰 방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불교인구 300만 명 감소'가 어느덧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는 요즘, 불교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높이 포교에 나서길 기대한다.

당사자 뺀 공원법 개정 안된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전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국 · 도립공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토지를 소유한 조계종과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총 공원구역의 육상면적 약 3,972㎢ 중 사찰지는 약 279㎢인 7% 수준으로 8440만평에 달한다. 이 같은 공원지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불교계는 공원 정책 안에서는 피해자임이 자명하다.

우선, 사찰지와 사유지를 포함하고서 '국립공원'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국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보니 마치 모든 공원 토지가 100% 국 · 공유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자연공원법이 '자연생태'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사찰보존지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 7개 산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산사라는 위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 안에 형성된 수행 · 신앙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유산'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세계적 유산 인식은 '종합 · 총체적 문화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일선 정책들도 이에 발맞춰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원과 관련 문화재 정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 · 도립공원에는 적지 않는 산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공원법은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존 ·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불교계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 부처의 태도는 무례한 행위다. 지금이라도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귄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www.wseon.com

Jeju 로 떠나는

쾌청참선 여행

지고 있는 짐을 법문듣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벗어버리는 禪

전통산사 원명선원서 펼치는 삶을 바꾸는 인생여행

이젠 참선을 편안하고 쉽게 시작해서 몸도 마음도 홀가분한 쾌청참선이 이루어집니다.

쾌청참선 다양한 참여행 순례 프로그램

2박 3일
A 기간 내내 쾌청참선
B 쾌청참선+사찰참배 +관광
3차 2018.9.9~9.11
4차 2018.9.16~9.18
비용 : 31만원

5박 6일(참선단식 수련회)
기간 내내 쾌청참선
1차 2018.7.29.~8.3
2차 2018.8.23~8.28
비용 : 51만원

공통 : 항공료 포함, 원명선원까지 버스 이동. 추가비용 없음

참선·단식수련회

〈〈 학생, 가족, 기능 단체별 환영 〉〉

- 초중고 인문학 캠프 운영중(2017년도 제주중앙여고 1학년 480명 전학생 참석)
- 각 학교에서 단체 집중력 프로그램 진행중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정 품성도야인성교육기관

홀가분한 직방참선 /올레길 활동참선

기존의 모든 상황에서 저절로 벗어버리는 선(禪 seon)을 합니다.
무경험자 무불교지식 무종교경험 더 더 곧 바로 다가온다.
50년 화두 참선, 대효스님의 쾌청참선 직접지도로 신·구참 활로를 찾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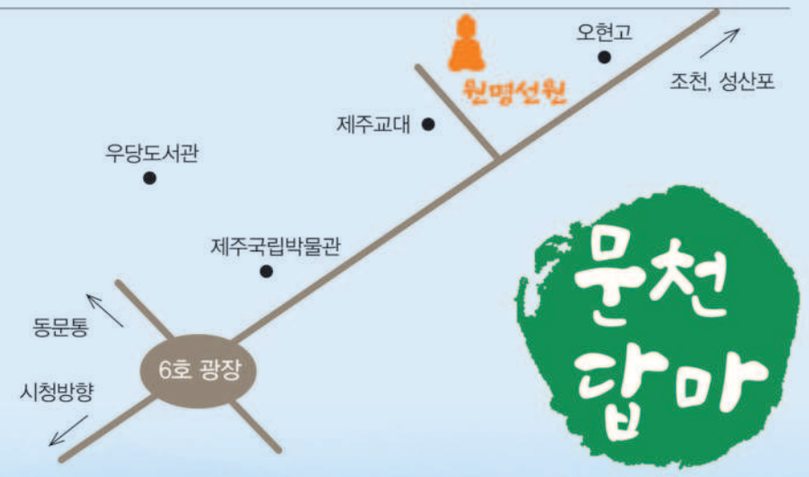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쾌청여행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홀가분한 인생여행

참선여행을 떠나요

옥빛 바다와 신령한 한라산 전통산사 Jeju 로 힐링 쾌청참선 여행을 떠난다.

저절로 깨닫는 참선! 아이도 깨닫는다! 하루아침 순간의 깨달음!!

영주10경의 하나 사봉낙조 한라산 자락에 자리한 원명선원 에서 만나요.



문천답마
문제는 천만이라도
답은 마음하나에 있다.

국내 최초 마음산업 참선여행

대한불교조계종
행복여는 곳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두길34 원명선원
010-5042-5442 / 1644-5266

천일고속여행사
064-743-0447

협찬 Jeju 제주특별자치도

집수리 봉사하며 '마음 수리 바라밀'



사용배 팀장은…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30세 때 사업을 시작해 번창했지만 한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려움을 겪으며, 봉사에 눈을 뜨게 됐다. 1997년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집수리 봉사팀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2002년 태풍 매미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거제 칠전도에서 집수리 봉사를 했다. 2000년 시작된 MBC '러브하우스'에도 참여했다. 2006년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집수리 봉사팀 '천수천안회' 팀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1999년 설립한 세기건축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그대는 자비보살

사용배(62 · 세기건축설비 대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집수리봉사팀 '천수천안회' 팀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대부분의 사람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쉽지 않은 일도 누군가는 늘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운 듯 어두운 듯해도 꺼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보시는 보살행의 첫 번째 덕목이 되었을 것이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가 일상이 된 이가 있다. 그이의 보시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돕는 것이다. 그는 20년 가까이 어려운 이들의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있다. 3년 전부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집수리봉사팀 '천수천안회'를 이끌고 있는 사용배 팀장이다.

수해를 겪고

사 팀장이 중학교 2학년이던 1972년 여름. 많은 비가 내렸다. 사 팀장이 살고 있던 서울 가양동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사 팀장의 집은 안타깝게도 침수되고 말았다. 사 팀장과 가족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처음 겪는 '난리'였고 '황망' 그 자체였다.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방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죠. 순식간이었어요. 책상이 잠기고 교과서가 물에 잠겼어요.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빈 손으로 집을 나와야 했어요."

잠시였지만 생활의 터전이었던 집을 잃는다는 것은 어린 사 팀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사 팀장과 그의 가족들이 황망함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본 것은 다름 아닌 이웃이었고, 그들의 배고픔을 덜어 준 것은 대한적십자사였다. 사 팀장과 그의 가족들은 비가 그칠 때까지 집이 침수되지 않는 이웃의 집에 머물면서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라면 두 박스와 냄비를 구호품으로 받았다.

"두고 온 젖은 교과서가 자꾸 생각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도 막막하고 걱정됐는데, 기꺼이 방을 내어준 이웃이 너무나 고마웠고, 누구의 손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는 라면 두 박스가 너무나 따뜻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살았죠"

사 팀장은 30대에 접어들던 1986년에 사업을 시작한다. 냉난방, 급배수, 전기, 가스, 주방 등 건축설비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나날이 커져갔다.

"흙수저까지는 아니었지만 금수저도 아니었죠. 스스로 일궈야 했죠. 자그맣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사업은 번창했어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보니 세상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일만 하면 누구나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살았죠. 제 눈에 가난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세상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달리 보인다.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 어렵지 않게 보인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세상이 어렵게만 보인다.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다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고, 그러다보니 어려운 사람들의 일이 자신의 일처럼 가슴에 와 닿는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늘 그렇게 쉬울 수만 있을까. 그렇다면 이 세상엔 어려운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나날이 사업이 번창하던 사 팀장에게 시련이 날아들었다. 사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도'였다. 그리고 설상가상 사기죄까지 뒤집어썼다. 세상은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사 팀장이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던 1996년이었다. 사 팀장은 공사를 수주한 원청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본의 아닌 부도를 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원청의 대표가 잠적했고 원청이 저지른 사기로 인해 사 팀장은 사기죄로 형사입건 됐다. 그는 1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야말로 '날벼락'이었다. 세상은 힘겨운 곳이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힘겨운 일도 있었다.

"구치소에 갇히고 나니 세상엔 가난한 사람과 힘겨운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늘 똑같은 세상인데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오늘은 보이더라고요. 비싼 수업료 낸 거죠(웃음)."

어머니의 〈천수경〉

"저보다 가족들이 더 놀랐고, 가슴 아파했죠. 특히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죠. 저 역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이 걱정됐죠.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게 힘들었죠."

봉사에 눈 뜨게 한 시간들
중2때 수해로 집 침수당해
이웃의 배려 고마움 경험
10년 사업 하루아침에 도산
사기죄 뒤집어쓰고 형사 입건
구치소에서 〈천수경〉 사경
"뜻 몰랐지만 사경은 큰 공부"

그랬다. 세상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다. 그의 말대로 세상사가 모두 '공부'였다. 그리고 그 공부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일단 구치소의 생활이 그랬다. 사용배라는 한 인간은 순식간에 집을 잃고 전혀 다른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우선 가족의 따뜻한 말과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곳엔 힘겨운 사람들뿐이었다. 그는 그 속에 있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세상의 다른 곳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마주하게 된다.

힘겨운 날들이 시작될 때, 사 팀장을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끈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사 팀장이 구치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사 팀장의 어머니가 〈천수경〉을 들고 사 팀장을 찾았다. 사 팀장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 부처님이 누군지, 불교가 무언지 알지도 못했지만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사 팀장에게 불교는 집에서 입는 옷 같은 것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는 것이 '불교'였던 아이였다. 사 팀장의 어머니는 힘겨워하는 아들에게 〈천수경〉을 주고 갔다.

사 팀장은 어머니가 주고 간 〈천수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니던 어릴 적이 옛날이야기처럼 지나갔다. 사 팀장은 뜻도 모르는 경전 속의 글자를 옮겨적기 시작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 당대(唐代) 사대부와 선종
B5 문화 — 36회 윤양호 개인전
B6 학술 · 문화재 — 한국동양철학회 '석학에 듣는다' 좌담회



사용배 팀장은 천수천안회에서만 20여 채의 집을 수리했고, 20여 년 동안 집수리 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낡은 집 수십채를 수리했다.



집수리를 마친 후 '천수천안회' 회원들과 기념사진. 윗줄 맨오른쪽 사용배 팀장.

"봉사는 저에겐 평생 '공부' 였어요"

봉사로 보시바라밀행

열린사회시민연합서 봉사 시작

1999년 제2의 창업 재기

2002년 '매미' 때 집수리봉사

칠전도에서 수해 집 7채 수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교육 이수

설거지, 승려복지재단 등 봉사

2006년 숙원 집수리봉사팀 창설

20여 년 동안 봉사 수십 채 수리

집수리 경비 모두 회원 회비로

후원 유치 위해 동분서주

'사용배 팀장'

B1면에서 계속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서 힘겨운 시간을 견디었다. 그의 시간은 시계의 초침 대신 〈천수경〉의 한 글자 한 글자로 흘러가고 있었다.

"저는 그 때 알았어요. 불교가 꼭 경전 속에 있거나 선지식의 법문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뜻도 모르는 글자를 쓰고 또 쓰다 보니 공부가 되더라고요.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가는 그 순간순간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것이 공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라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 팀장에게 〈천수경〉의 뜻 모를 글자들이 공부가 되어가고 있을 때, 사 팀장은 구치소를 나오게 된다. 사 팀장은 어머니의 〈천수경〉으로 6개월을 살았다. 더 없는 공부였다고 그는 말했다.

또 다른 〈천수경〉 '봉사'

힘겹고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 팀장은 구치소를 나왔지만 세상은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했다. 사 팀장은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만만치 않았다. 남의 일은 쉽지 않았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구치소 때와 마찬가지로 사 팀장에게 시간은 여전히 힘겨운 것이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천수경〉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그 때 그는 '봉사'와 만나게 된다. 사 팀장은 우연히 지인을 통해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고 그 안에 봉사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낡은 집을 고쳐주는 봉사팀이었다. 사 팀장은 '이거다' 싶었다.

"집수리 봉사팀이라는 말에 마음이 갔어요. 집수리는 내가 제일 잘 하는 일인데,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었죠. '봉사'라는 말에 마음이 일었어요."

그는 난생 처음 '봉사'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구치소에서 힘든 시간을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천수경〉 같은 것이었다. 힘든 시간 속의 '사용배'에게 봉사는 또 다른 〈천수경〉이었다. 그는 또 다른 사경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남는 시간엔 봉사팀 일에 매달렸다.

"처음엔 힘든 시간을 잊고 싶어 시작했는데, 구치소에서 읽고 쓰던 〈천수경〉처럼 하루하루 어려운 사람의 집을 바라보고, 그 집들을 고쳐주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꼭 구치소의 〈천수경〉 같았어요. '공부'였어요."

그랬다. 공부였다. 그것이 공부가 안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그는 구치소에서 6개월을 보냈던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내일을 위한 하루하루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1999년 2월, 다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

태풍 '매미'… 수해 현장으로

2003년 9월 12일 밤, 태풍 매미가 경남지역 해안으로 상륙한다. 초속 54m의 엄청난 바람을 이끌고 한반도를 지나간다. 그리고 매미가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 된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잠기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인명피해 130명(사망 117명, 실종 13명), 재산피해 약 4조원.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이재민의 슬픔과 아픔이었다. 온 국민의 눈과 귀는 '매미'에 가 있었다. 뉴스를 보고 있던 사 팀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보일러 두 대와 자재, 공구들을 싣고 바로 거제의 칠전도로 향했다.

"그냥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망가진 집들의 영상 위로 어릴 적 가양동 집이 떠올랐어요. 물에 잠겨가던 책상과 교과서가 다시 생각났어요. 그리고 황망해 하고 있던 우리 가족에게 방을 내어 주던 이웃과 적십자사에서 나누어준 라면박스가 생각났죠. 그 순간 생각할 것도 없었죠."

사 팀장의 눈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어려운 시간을 건너온 사람만이 어려운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일까. 사 팀장은 젖은 집들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사 팀장은 칠전도에서 일곱 채의 집을 고쳐주고 돌아왔다. 사 팀장에게 봉사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기왕이면 부처님 마음으로… '천수천안회'

"기왕이면 불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어졌어요. 불자들과 함께 하면 더욱 더 부처님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사 팀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불자'를 내세우며 살지 않았지만 사 팀장의 마음속에는 어려서부터 젖어온 불심이 있었다. 귀로만 들었어도 염불은 염불이고, 눈으로만 보았어도 부처님은 부처님이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어도 그것은 귀한 인연이고, 귀한 인연은 반드시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기 마련이다. 사 팀장 역시 그 귀한 인연의 씨앗이 세상을 살면서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이다.

2006년 사 팀장은 우연히 서울 조계사 앞을 지나다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 기본교육과 모집에 관한 현수막을 보게 된다. 그는 바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복지재단에서 봉사를 시작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설거지 봉사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 승려복지회 봉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사 팀장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집수리 봉사'였다. 그는 꾸준히 집수리 봉사팀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신설을 추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집수리 봉사팀 '천수천안회'가 만들어진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을 돕는 관세음보살님처럼 힘겹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팀장을 맡은 그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회원들과 집수리 봉사를 나간다.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의 집을 찾아 보일러와 에어컨을 고치고, 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집안 청소까지 한다. 도배를 한 다음 날엔 온 몸이 쑤신다.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즐거운 훈장과도 같은 것이기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사 팀장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것은 충분히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중고 보일러가 아니라 새 보일러, 새 에어컨을 놔주고 싶고, 더 많은 집의 도배와 장판을 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사 팀장이 마음껏 해줄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부족한 재정 때문이다. '천수천안회' 발족 이후 봉사팀은 이렇다 할 후원 없이 집수리에 필요한 장판과 도배지, 페인트, 공구까지 모두 회원들의 자체 회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 팀장 개인의 인맥으로 현금 지원, 공구와 자재들을 공급받아왔다. 일창산업의 정규선 대표와 ㈜아이삭, 김수진 내과 원장 등 사 팀장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 조금씩 그를 돕고 있을 뿐이다. 아쉬운 대목이다. 아니 안타까운 대목이다.

사 팀장은 천수천안회에서만 20여 채의 집을 수리했고, 20여 년 동안 수십 채의 집을 수리했다. 천수천안회는 이미 오래 전에, 집을 잃어봤던 한 소년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자라온 것이다.

"지난해까지 회비가 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비를 걷지 않아요. 돈 만 원도 이제는 서로 미안해졌기 때문이죠. 워낙 모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해결하고 있어요. 공구나 자재는 제가 어떻게든 구해 오고, 밥은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니까, 그냥 서로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정부나 복지관에서 지원받아 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저희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가 조금 섭섭하고 기운 빠지죠."

오늘도 사 팀장은 퇴약볕 아래서 회원들과 땀을 흘린다. 그리고 자장면 한 그릇으로 점심을 먹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 팀장은 오늘 고치고 온 할머니의 낡은 보일러가 걱정이다. 새것으로 바꾸지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한 달 후에 사 팀장은 또 어떤 걱정을 지고 돌아오게 될까. 이 또한 우리 모두가 짓고 있는 업은 아닐까. 후원문의 / (02)723-5101(조계종사회복지재단).



당은 선종의 초월적 정신세계에 매료 중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⑬ 당대(唐代) 사대부와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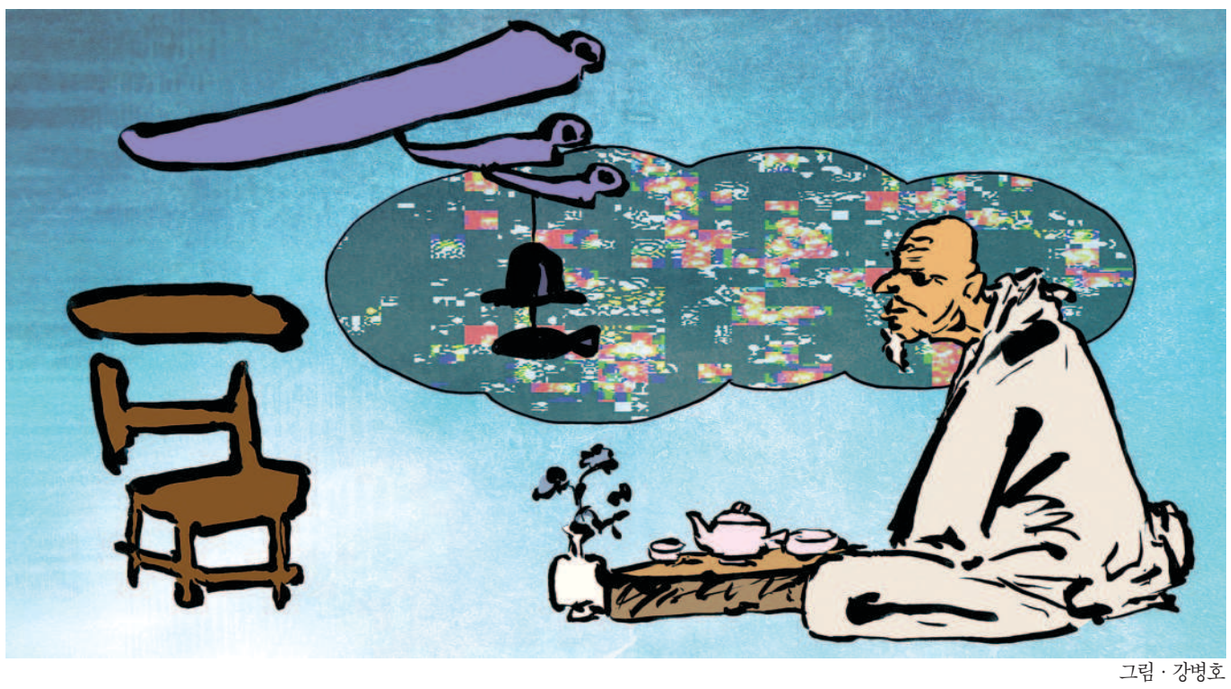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선종에서 추구하는 선오(禪悟)의 경계는 바로 본래 나와 자연과 합일 내지 현실과의 일체가 되는 경계를 추구하기도 하며, 동시에 자심(自心)의 본성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티브는 당시 문인이자 사대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즉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을 것이며, 동시에 선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당나라 중엽(盛唐)으로 접어들면서 사대부 문인들은 보편적으로 불교사상에 심취해 있었다. 특히 불교는 그들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사유방식 및 심미적 추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가(詩歌) 예술에서 이들의 표현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떤 면에서 시인들은 선학의 초월적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동진 이래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로 중국 전역에 불교가 유행되었다. 어떤 학식이 있는 사대부들은 불법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문인과 고승들 간의 교류가 또한 하나의 사조를 이루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당대의 유원종이 말하기를 "옛적, 사문의 상수들은 현명한 사대부와 더불어 내왕하기를 좋아했고, 진송 이래로 도림, 도안, 휴상인 등이 있었다. 그들과 더불어 교유했던 사안석, 왕일소, 습착지, 사운영, 포조 등은 모두 그때 엄선된 인물들이다. 이 진승법인은 유전과 더불어 병용하였기에 사람의 향방을 알게 했다"고 평했다. 당대는 불교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로서 종파 또한 난립하였고 승려도 많았다. 불전은 천하에 유행하였고, 사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건립 되었다. 문인 사대부는 당나라 사회의 엘리트들이었다. 즉 사회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주체들이었다. 불교문화의 발전은 당연히 문인 사대부들의 참여가 아니고는 전파 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사대부 문인들 간의 교류는 당대 불교문화를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 황제들도 불교를 숭상하였다.

당대 사대부가 불교를 숭상한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몇 가지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대 불교는 대부분 통치자의 지지와 제창이 있었다. 통치자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당연히 사대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사대부들은 통치자들과 영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사대부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승려들을 초청해서 제단을 설치하고 의식을 베풀기도(設齋念經)했다.

두 번째, 사대부들이 과거시험공부를 위해서 사원에서 은거를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불교문화에 물들었다. 불교는 사대부들이 실의에 빠졌을 때 의지처가 되기도 했다.

세 번째, 불교선종이 문인에게 준 영향이다. 범문란(範文瀾)의 〈중국통사간편(中國通史簡編)〉에 보면 "중국 사대부 입맛에 맞는 종교이다(适合中國士大夫口味的宗教)"고 선종을 평가하고 있다. 일상 관료 정치체제 속에서 현실의 모순을 피해 잠시나마 정신적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선종 총림의 선사들과의 교류를 들 수 있다. 고승들과 교유를 통해 복잡한 현실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선종만이 지니고 있는 일종의 초월적 정신세계의 경계에 그들은 점점 매료되었다.

선종의 전파 사대부 주도
백거이 등 당대문인 선종 추종

선종 초기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하층민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사대부 및 상층부의 주의를 끌지는 못했던 것 같다. 혜능 계통의 남종선이 전국에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당나라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선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졌고, 선종의 존재가 당나라 사대부 및 관료 등 상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당나라 중엽 말기의 번성기를 끝으로 안록산의 난을 거치면서, 사대부들은 선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중국 사대부들의 희망이 입신양명에 있다면, 그 바탕은 유교의 정신과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들이 선종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유추해 보면 그들은 현실도피처로서 선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정신적인 안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심리상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장소 혹은 의지처로서 선종을 지목했다.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당대 사대부들의 참선활동은 안록산의 난(安史之亂)이후 남종선이 흥성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당대(唐代)의 유명한 사대부 문인들 중에서 선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백거이(白居易)는 본래 정통한 유학자면서 도교를 깊이 신봉하기도 했다. 반면에 불교에도 정통하였고 많은 선사들과 교류를 가졌으며, 그가 임종할 때 향산의 불광여만선사(佛光如滿禪師)탑 곁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기도 했으며, 후대인들은 그를 가리켜 향산거사(香山居士)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왕유(王維)는 하택신회(荷澤神會)와 일찍이 교류를 하였으며, 자주 만나서 도(道)에 대해서 담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자기의 시(詩) 가운데에서 선의 철학적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유명한 시로서 '인한계화락(人閑桂花落), 야정춘산공(夜靜春山空). 월출경산조(月出惊山鳥), 시명춘윤중(時鳴春澗中)' 라고 하였는데, 시의 대략적 내용은 선종의 정중동(靜中動), 공유불이(空有不離), 불이경계(不離境界) 등의 사상은 선종에 깊은 의미를 은유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색창연한 총림에서 홀연히 만난 봄의 기운을 통해서 나름의 활연오도(豁然悟道)한 경계 및 심정을 시로 표현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감성 자극은 물론이거니와 선미(禪味) 내지 선리(禪理)의 철학적 경계까지 시 한편을 통해서 표현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선의(禪意)가 충만한 관계로, 사람들로 하여금 선미(禪味)를 음미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일찍이 천복사(荐福寺)의 도광선사(道光禪師)와도 깊은 교류가 있었으며, 또 하택신회의 요청에 의해서 〈육조선사비명(六祖禪師碑銘)〉을 쓰기도 했다.

또 당대의 이백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시성(詩聖)이라는 불리는 두보(杜甫)도 선에 대해서 "신허쌍봉사(身許雙峰寺), 문구칠조선(問求七祖禪). 락범추숙적(落帆追宿昔), 야갈향진전(夜褐向眞詮)."이라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여기서 쌍봉사는 동산법문의 황매조정(黃梅祖庭 · 근원지)을 말하고, 칠조선(七祖禪)은 달마선으로부터 북종선의 7조인 하택신회 선법을 말한다. 두보는 또 다른 시에서 "여역사찬가(余亦師璨可), 신유전선적(身猶纏禪寂). 하계우방편(何階於方便), 류인위필적(謬引爲匹敵)"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찬가(璨可)는 당연히 승찬을 말한다. 아무튼 두보는 선종의 사상 및 인물들을 매우 추종하였다. 또 당대의 현종(文宗)을 도와서 개원(開元 · 당 현종의 연호로서 중국 역사에서 매우 번성했던 시기이다. 즉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기 전을 말한다)의 시대를 연 명재상인 장설(張說 · 667~730)은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문학가이기도 한데, 그도 역시 육조대사가 원적한 후에 애틋한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즉 "대사염세거(大師厭世去), 공여법력재(空余法力在). 원기무애향(遠寄無碍香), 심수도남해(心隨到南海)"라고 했다. 역시 당대의 대문학가인 유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에서 재직을 할 때 선승들과 자주 왕래를 했다. 그를 가리켜서 '일시남방제대덕비명지문다출기수(一時南方諸大德碑銘之文多出其手 · 한때는 남방의 모든 대덕들의 비문이 모두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라고 전해진다. 이외도 당대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류우석(劉禹錫 · 772~842)도 혜능선사에 관한 〈사익대감선사비(賜謚大鑒禪師碑〉를 쓰기도 했으며, 많은 선승들과 깊은 교류를 하면서 당시 불교 내부의 요구에 의한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주장하였다.

방거사(龐居士)는 선종사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물로서 그는 본래 '본이유위업(本以儒爲業 · 본래 유교가 본업이다)' 이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석두희천에게 도를 묻고 활연히 느끼는 바가 있었고, 그 후 약산유엄, 단하천연 등과도 깊은 교류를 하였으며, 그는 또 〈방온어록(龐蘊語錄)〉에서 "공리진법신, 법신즉상주, 불신지저시, 미인자불오(空理眞法身, 法身卽常住, 佛身祇這是, 迷人自不悟)"라는 공적무상에 대한 관점을 피력하기도 했으며, 또 "신작여래신, 지작여래고, 송출바라밀, 유통정도로, 혼신총시불, 미인자불오.(神作如來身. 智作如來庫. 涌出波羅蜜. 流通正道路. 渾身總是佛. 迷人自不悟)' 라는 자심여래관(自心如來觀)"라는 관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고(李翺 · 772~842)는 국자박사(國子博士)로도 유명한 인물로서 비록 유가에 몸을 담은 학자지만, 약산유엄의 '운재청천수재병(云在青天水在甁)' 이라는 법어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그의 철학 논저인 〈복성서(複性書)〉에서 "피이사해, 아이심통자야(彼以事解, 我以心通者也)"라고 하였는데, 선종의 즉심즉불 사상을 흡수한 것으로, 이런 그의 사상적 관점은 송명이학(理學)의 육왕심학(陸王心學)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이외도 당나라 선종(宣宗) 때 명재상인 배휴(裴休)도 많은 선승들과 교류 및 서문 저작을 남긴 거사로 유명하다. 특히 규봉종밀 및 황벽희운 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나라 사대부들이 참선에 몰두하고 선 문화에 빠지게 된 배경에는 당시 당나라는 물질이 풍부한 사회로서 사상도 언론도 비교적 개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종은 활달하고 격의 없는 가르침과 격식을 멀리하고 자유개방 혁신을 주장하면서 활발발한 생명력이 넘치는 풍토를 조성하였던 일종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했던 단체라고 하겠다.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정신적인 자유에 부응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안록산의 난 이후 현실적으로 사대부들이 지녔던 이념과 신념 및 이상을 실현시키기에는 현실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의에 빠진 그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이상을 실현하는데 힘을 쏟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의 내상을 치료받을 수 있는 은둔처 혹은 도피처가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들이 자의 반 타의 반 선택한 장소가 바로 선종이라는 새로운 세계였고, 현실과는 분명히 또 다른 세계로서 그들을 매료시키기에는 충분한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나름의 자아의 정체성 사회적인 책임감 역할 등 현실의 도피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고 터득해서 마침내는 현실과 이상, 종교와 현실′출세(出世)와 입세(入世)가 둘이 아닌, 불이경계의 경계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을 것이다. 즉 그들이 방황하고 방랑하던 현실이 바로 불국토이고 이상처(理想處)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 속에서 색다른 관점으로 인생의 철학적인 가치와 이상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을 것이며,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과 가치를 분명히 발견했을 것이다.

〈동국대 강사〉




나라 고후쿠지 동금당과 오층탑. 고후쿠지에는 일본 국보 아수라상이 봉안돼 있다.

간사이 아줌마가 전하는 일본사찰 진면목


나라 도다이지 본존불. 통칭 '나라 대불'이라고 부른다.



요코와 함께 한 일본사찰 순례

나카노 요코 지음/ 최선일 · 홍은미 감수
종이와나무 펴냄/ 1만 8천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본지 1년 연재 원고 보완 · 발간
일본인의 한국어 연재 첫 사례
"바른 한일 교류" 저자 원력 담겨

접하기 어려웠던 현지 정보 등
日간사이 사찰 32곳 면면 전해
일본 문화 속살 찾는 가이드북

우리는 흔히 일본의 신앙을 '신도(神道)'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신도 못지않게 일본인들의 일상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는 불교다.

하루하루의 삶을 신사나 신도에 의지한다면, 내세를 비롯한 인생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불교에 크게 의지하는 것이 일본인들의 특징이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장례식이나 제사는 대부분 불교식을 따른다.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다도, 화도(꽃꽂이), 향도 등의 전통문화는 모두 불교(선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다. 지금도 일본에는 18만 명의 스님과 8000만 명에 달하는 재가불자가 있다. 사찰 수만 7만 5000곳이 넘는다.

이 같은 일본 불교는 그들 문화의 뿌리이자 사상적 근원이다. 특히 신앙처인 사찰은 문화 · 사상을 응집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발간된 〈요코와 함께 한 일본사찰 순례〉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전하는 일본 사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저자인 나카노 요코는 한국과 한국 사찰을 사랑하는 간사이 아줌마다. 그는 아사히신문 기자인 남편을 따라 서울로 와서 3년을 거주했으며, 이때 한국 사찰의 매력에 빠졌다. 귀국 후에는 한국인 친구들에게 일본 사찰을 안내하는 답사 가이드를 자처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일본 사찰의 진면목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가졌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난해 1년동안 본지에서 연재된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이다. 이번 책 〈요코와 함께 한 일본사찰 순례〉는 본지 연재물을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간사이 토박이 아줌마'인 만큼 저자가 소개하는 사찰 32곳은 간사이 지역인 교토 · 나라 · 시가에 집중돼 있다. 소개된 사찰 중에는 도다이지(東大寺) · 호류지(法隆寺) · 야쿠시지(藥師寺) 등 우리에게 친숙한 사찰도 있지만 현지인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찾아가 볼 수 있는 사찰들이 적지 않다. 실제 시가 지역 사찰 고겐지(向源寺)는 일본 국보인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봉안된 곳이고 이를 중심으로 관음마을이 형성돼 있다. 이는 일본 호북지역의 특유의 관음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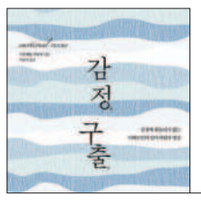
이에 저자는 "마을 주민들이 작은 암자를 짓고 옛날부터 신앙을 받았던 불상을 모셨다. 불상들이 이렇게 종파를 넘어 마을을 지키는 본존이 됐다"며 "지금도 호북 지역 작은 사찰에 수준 높은 불상이 남은 것은 마을 주민들의 깊은 신앙심 때문"이라고 상세히 설명한다.

현지 토박이인 저자는 사찰의 문화부터 풍광, 유래, 현지 신행 행사 일정까지 자세히 소개한다. 찾아가는 방법이나 더 찾아볼 곳, 먹거리는 별도의 코너로 묶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사찰 답사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과 아름다운 사진들은 현지에 가보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일본 사찰의 매력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같은 작업은 한국과 일본 서로에게 바른 정보를 전하고 교류했으면 하는 저자의 원력이 담겼다.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뉴스들이 양국의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고 그 간극을 배려하는 정신을 가질 때 양국의 우정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한일 양국의 불교와 사찰은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면이 많아서 상호 이해와 배려를 체득하기에 가장 좋은 분야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제가 책을 쓰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반관광 사찰이 아니라 정말 일본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사찰을 한국인에게 소개하자'였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좋은 점만 볼 수 있다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주 욱하는 내감정, 구해 낼 수 있을까?



감정구출

족첸 뾘롭 린뽀체 지음, 이종복 옮김
담앤북스 펴냄/1만 6천원

'감정'에 대한 우리의 오해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소유물처럼 여긴다. 아니면 감정을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인 양 이해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 있는가? 당신의 감정 가운데 하나를 자리에 앉혀 '너 진짜 내가 짐작하는 대로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붓다가 찾아낸 '감정'에 관한 진실

붓다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감정들은 거대한 에너지 장, 광활한 생생함, 아름답게 빛나며 충만한 불꽃 속에서 노닌다. 이 에너지 장은 순수한 물과 같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생기가 넘친다. 여기에 생각이 치고 들어와 이 깨끗한 에너지 위에 이름표, 판단 그리고 이야기들을 덧대기 시작한다. 각각의 생각은 마치 물과 섞일 때 색을 뿜어내는 염료 한 방울과 같다. 이 순수하고 청정한 에너지가 생각과 섞이면 어떻게 될까? 마음은 매우 다채롭고, 화사하고, 표현이 넘치게 된다. 이것을 '감정'이라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감정 안에는 오직 두 가지 재료만 들어 있다. 에너지와 관념. 밝고 생기 넘치고 영양분 가득하며 지속적인 것이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에 색깔과 맛까지 입히는 분별적인 것이 '생각'이다.

솔직하게, 고요하게, 억누르지 않고

감정이 우리 삶을 이끄는 포스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행복, 기쁨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드는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화, 질투, 욕심,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 이를 위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오랜 친구를 마주하든, 새로운 사람과의 가능성들을 찾아내고자 하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을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습관적인 패턴은? 당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사람을 살피듯 감정과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감정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 구출〉은 감정 다스림에 관한 티베트의 지혜를 담은 대중명상서다. 저자는 티베트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명상지도자이다. 감정을 다루는 동서양의 차이점을 직시하면서, 감정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요히 직시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금 자기 자신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내 안의 감정을 탐사해 보라.

책에서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구출)을 3단계, '알아차리며 거리 두기' '명확하게 보기' '내려놓기'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적의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도 먼저 감정 자체를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서는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세 가지 태도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우선 각 단계마다 각각의 '출구'를 제시한다. 여기서 출구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감정에 대한 상습적인 방응과 그 반응의 고통스러운 결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 주는 방법을 말한다.

문제는 감정을 알아차려서 내려놓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가 청진기 소리로 소화기나 폐의 이상 유무를 검진하듯 이들은 소리를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된다. 보통사람이 들으면 비슷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들의 귀엔 불량품을 걸러낼 수 있는 알아차림의 소리로 들린다.

감정을 알아차리거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기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잘 안 되고 서툴지만 집중 반복해 연습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었던 감정까지 훤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다.

김주일 기자

알아차림, 자애, 명상을 통한
'내 감정과 소통하는 연습'

STEP1 알아차리며 거리 두기 (mindful gap)
- 나와 감정 사이에 안전거리를 만드는 연습.
- 나의 감정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심리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

STEP2 명확하게 바라보기 (clear seeing)
- 내 감정을 둘러싼 조건/환경을 바라보는 연습.
- 감정 반응에 담긴 나의 습관적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STEP3 내려놓기 (letting go)
- 오감(五感) 명상 및 몸과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억눌린 에너지를 풀어내는 연습.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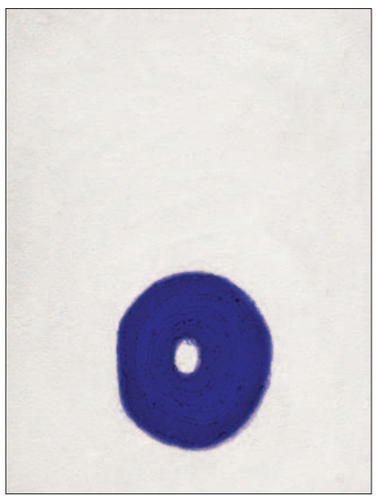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청색으로 표현한 수행과 공감의 미학

윤양호 개인전 'NUR WEIS NICHT'

갤러리 비선재 7.20 ~ 9.17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단색화로 수행과 공감 등의 미학을 추구해온 윤양호 작가의 36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갤러리 비선재는 7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윤양호 작가의 앵콜전 'NUR WEIS NICHT(오직 모를 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비선재에서 열리는 윤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다. 지난 3월 열렸던 '단색화' 전시가 작가의 시기별 흐름과 미학적 개념을 정립하는 전시였다면 이번 전시는 수행과 공감 등의 지난 전시에서 정리된 개념을 심화시키는 전시로 2018년 신작 40여 점을 집중 조명한다.

그가 작품 속에서 내면의 정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조형언어는 도형과 색채이다.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을 상징하는 형태로서 윤 작가가 원에 부여하는 가치는 우리의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들은 다시 일정기간 순환하며 또 다시 변화한다. 이러한 반복적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행적인 관점으로 삶의 지혜와 존재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다. 수행은 인식의 확장이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는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윤 작가는 원형의 확장된 형태로 색면과 무수히 많은 점을 캔버스에 담아내기도 한다. 안료를 수 십여 차례 덧칠하고 점을 찍기 위한 반복적인 붓질은 행위성을 강조하며 작품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수행의 미학이라 볼 수 있다.

윤 작가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빨려 들어갈 듯 화면을 채운 색채이다. 돌가루, 모래와 함께 작가의 주요 재료인 청색 안료는 단순하고 절제된 추상형태에 정신의 깊이를 더한다. 그는 이브 클랭이 발명한 IKB(International Yves Klein's Blue)를 사용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 물감을 다루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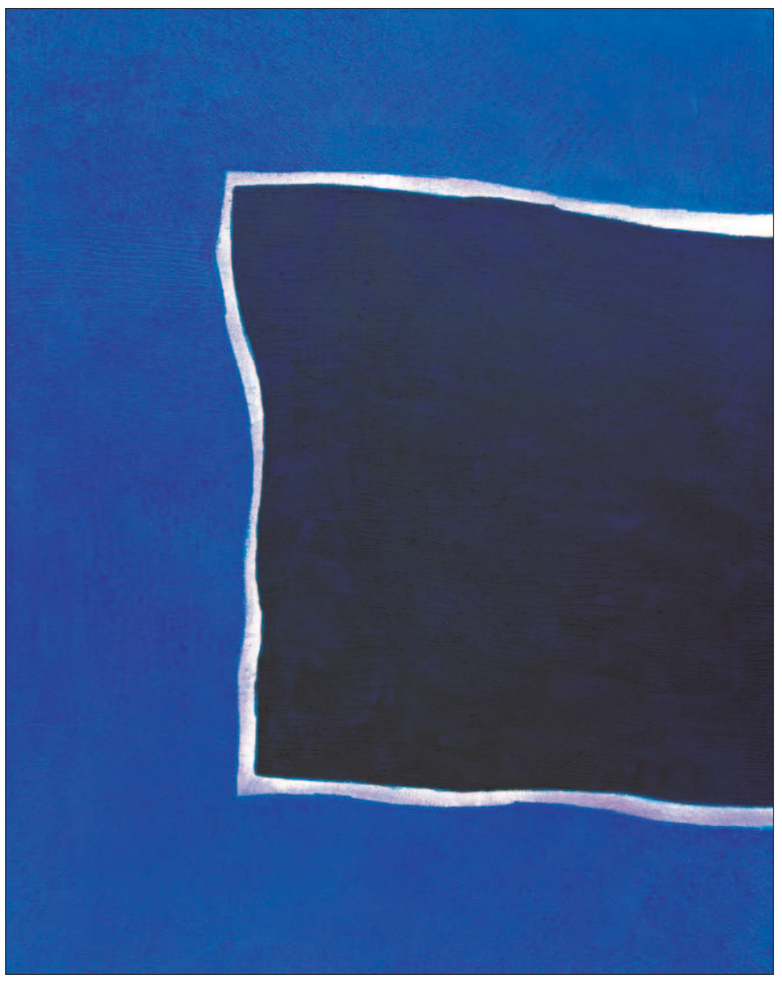
신작 40여 점 집중조명
반복적 붓질… 수행의 미학
다양한 변형의 청색 미학
교감 · 공감 넘어 '치유'로

체득한 경험으로 다양한 변형의 청색을 표현하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파리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브 클랭의 작품을 처음 본 이후 연구를 거듭하던 윤 작가는 그가 추구했던 것이 정신성에 대한 탐색이었음을 주목했다. 그는 이브 클랭이 허공을 탐색하며 추구했던 정신성과 그의 선 수행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며, 서로 다른 사상과 철학,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고 인식되어왔던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현하는 유사한 정신성을 통하여 작가는 시 · 공간을 넘어 인간은 다르지 않은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은 서로 소통한다. 작가와 관객은 작품을 통하여 교감하고 공감한다. 윤 작가의 작품은 더 나아가 치유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행의 과정을 담은 작품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작가는 그가 그랬듯이 관객이 스스로 자아를 찾아가기를 바란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얻기 위해 복잡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는 아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다. 관념에서 벗어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에너지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윤 작가의 작품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갤러리 비선재는 전속작가인 윤양호의 심화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비선재와 함께 한 지난 개인전과 아트페어에서 이미 입증을 받으며 개최되는 두 번째 개인전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Zen geist-아는 것을 버리다' 259.1×193.9㎝.

茶로 하나 되는 '찻자리'

2018 명원세계차박람회 8월 2~5일 서울 코엑스 B홀
평화다례, 화랑다례 등 다양한 다례 선보여



지난해 열린 명원세계차박람회.

남북 화해 분위기와 한반도 통일을 열기 위한 4 · 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찻자리와 차를 나누는 '평화다례'가 열린다. 우리 차문화와 산업을 이끌어온 명원문화재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 특별무대에서 '2018 명원세계차박람회'를 개최한다.

평화다례는 (재)명원문화재단이 역사적으로 행해온 다례와 현재 한반도 화합 분위기를 접목시킨 찻자리이다. 의식의 모든 부분에서 남과 북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자리에서 차는 남한의 한라산, 하동, 보성의 녹차를 사용하며, 물은 백두산 청정수를 사용한다. 남쪽 지역의 삼색다식과 북쪽 지역의 개성약과를 다식으로 올리고, 남한의 무궁화와 북한의 작약으로 찻자리를 장식한다.

다례는 '차 예절'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얼을 담은 다양한 형태의 다례를 행해왔다. 삼국시대에 화랑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풍류를 즐긴 '화랑다례', 조선시대 선비들이 여름철 연지를 찾아 만발한 연꽃과 시와 차를 함께 음유한 '상연다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명절이나 왕실의 경사에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진연다례' 등 궁중다례도 성행했다. 이번 행사는 삼국시대부터 남북 화합을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 각계각층에서 행해온 특별한 다례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재)명원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민족 평화다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례를 요일별로 선보인다.

8월 2일 개막식에서는 제23회 국제차문화대상 시상식과 제1회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며, 화랑무예와 화랑다례, 선비연화다례(상연다례), 궁중무용을 선보인다. 검법과 다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의 절도 있는 공연과 차 생활을 엿보고, 선비들의 흥과 기품을 담은 찻자리를 관람할 수 있다.

8월 3일에는 세계적인 차와 만나는 월드티심포지엄과 월드티아트콘테스트가 진행되며,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다인들의 마음을 담은 한민족 평화다례가 펼쳐진다. 8월 4일에는 청소년과 일반인 다례경연대회로 차와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8월 5일 폐막식 공연으로 조선 고종 당시의 '궁중진연다례와 춘앵전'을 재현한다. 문의 (02)742-7190 박재완 기자



우예인 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

학생들이 그린 천년고찰 범어사

'범어사를 담다' 展
불교문화테마전시관 7.27~12.30

학생들이 그린 그림으로 범어사를 감상한다. 부산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7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8 하반기 테마전시 '범어사를 담다'를 개최한다. 전시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운영하는 불교문화테마전시관(부산도시철도 범어사역 5번 출구 아래)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범어사를 그린 작품들을 전시한다. 그림은 부산 범어사 조계문(보물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을 비롯하여 범어사 내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학생들의 독특하고 순수한 시각으로 그린 수묵, 수채화 등의 다양한 형식의 그림들이다. 실물이나 사진과는 다른 느낌의 천년 고찰 범어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비폭력·민족성 충돌… 인문학자의 선택은

허우성 교수, 동양철학회 좌담서 문제 제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09년 7월 10일 런던에서 체재하던 간디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용감한 일본병사'라는 글을 남겼다. 간디는 글을 통해 폭력으로 이토를 죽인 안중근도, 폭압으로 조선을 강탈한 이토도 모두 '비폭력' 정신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불교의 가치인 비폭력 사상과 민족주의라는 지역적 가치가 충돌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같은 철학적 화두를 불교학자인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7월 10~11일 서울 종로 관음종 묘각사에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회장 신규탁) 하계 워크숍에서 던졌다.

허 교수는 '비폭력 원리와 불멸의 민족혼이 충돌하면 한국 인문학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 질문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예로 내놓은 것이 안중근 의사였다. 안중근 의사는 15개의 죄를 열거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반대로 제시한 인물은 바로 간디다. 허 교수에 따르면 간디는 인도의 자치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영국인을 피습하는 독립투사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실제 간디는 한 연설에서 "내 내셔널리즘은 우주만큼 광대하다. 나의 내셔널리즘은 전 세계의 복지를 포함한다"며 "나는 인도가 다른 나라의 잔해를 밟고 일어서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허 교수는 "저급한 동물부터 모든 나라를 포함한다는 우주적 내셔널리즘은 통상적인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와는 너무 달라서 도저히 민족주의로 부를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안중근 의거·간디 사상 비교해
민족혼·비폭력 갈등 상황 예시
외부 향한 분노, 사회 분열요소
가치 충돌서 철학적 화두 던져

그러면서 "간디의 우주적 내셔널리즘 바탕에는 아힘사의 가르침이 있다. 자비와 아힘사는 인도 초기불교 경전 이래 모든 불교경전의 기초적인 가르침이 되어 왔다"며 "붓다, 간디 같이 아힘사 원리에 입각한 사람은 정당화하기 쉬운 분노의 인간관에 동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양철학회는 7월 10~11일 서울 종로 관음종 묘각사에서 '2018년도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허 교수는 분노의 인간관이 사회 단합을 해칠 수 있는 요소라고 봤다. 그는 "우리는 민족 외부로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우리 내부의 좌파, 보수의 시비와 대결에 침투하고 일치와 단합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부정적 감정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한국 인문학계가 어떤 위치에서 철학을 할 것인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1부 '동양철학의 보편성과 지역성'에서 중국철학 연구자 오상무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그간 연구사를 회고하면서, 고전철학연구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철학자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서 인하대 철학과의 이봉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국유학 연구의 역사를 요령 있게 정리 보고했다.

2부에서는 김성기 성균관대 교수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학이 무엇인지, 그 현재성에 주목했다. 도교를 전공하는 김성환 군산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도교학자였던 전병훈을 사례로 들어 '자기철학하기'가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

만해와 백성욱 관계 모색한다

만해학회, 27일 '만해와 백성욱' 학술세미나



근현대 선지식이자 독립운동가, 정치인, 교육자였던 백성욱 스님(1897~1981, 사진)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 열린다.

만해학회(회장 김광식)는 오는 7월 2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만해 한용운과 백성욱- 만해사상의 계보학'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중앙학림 강사로 재직했던 만해 스님의 영향으로 불교계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백성욱 스님은 1910년 봉국사에서 최하응(崔荷翁)을 은사로 출가해 득도했다. 3·1운동 때에는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프랑스 파리 보배고등학교에 입학해 독일어 등을 공부한 뒤, 1922년 독일의 벌츠불룩대학 철학과에 입학해 1925년 벌츠불룩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귀국, 불교지 등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다가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로 취임했다.

1946년부터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건국운동에 참여했고, 1950년 건국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에 임명됐으나 뜻과 같지 않아 5개월 만에 사임했다. 1951년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1952년에는 부통령에 입후보하기도 하였다.

1953년 동국대 총장에, 1954년 동국학원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이후에는 85세를 일기로 입적할 때까지 불교의 전법에 매진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이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백성욱 스님의 생애 전반을 살핀다. 김광식 만해학회장이 '백성욱의 삶과 한용운'을, 정천구 前 영산대 총장이 '백성욱의 불교사상'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백성욱의 〈금강경〉 경문의 이해와 그 특징'을 발표한다.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백성욱과 동국대'를, 김성규 명지대 교수는 '백성욱의 평수잡조와 인문학적 글쓰기'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는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윤창화(민족사), 황상준(동국대), 황인규(동국대), 이경호(서울교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 93호 발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정기 학술지 〈미술자료〉 제93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회화, 도자기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 3편과 자료 2편을 수록했다.

논문으로는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의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에 관한 신고찰', 오영인의 '고려후기 상감청자유개발탁의 제작과 그 배경', 박수홍의 '초전(蕉田) 오순(吳珣)이 그린 산수화 연구'가 있다. 자료로는 서유리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남 산청군 장천리 도편(陶片) 소개', 이수경의 '신여량의 주사선연지도(舟師宣宴之圖) 제작배경 재검토'를 실었다.

특히 회화사 연구의 석학인 안휘준 명예교수는 일본 주구지(中宮寺)에 소장된 '천수국만다라수장'의 복원도를 새롭게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술자료〉는 1960년 창간된 국내 최초의 미술사 전문 학술지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종교 전통 고찰

동국대 불교학술원 IJBTC 28권 1호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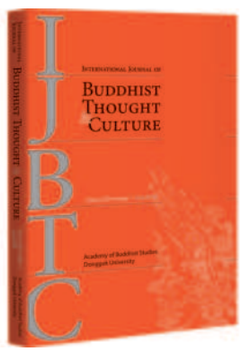
하버드대·홍콩대·도쿄대 등 세계 저명학자 논문 수록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 종교와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영어학술논문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지난 6월 30일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8권 1호를 발행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 불교전문 국제 영문 학술지인 〈IJBTC〉 28권 1호는 '동아시아에서 불교와 이웃 종교의 전통(Buddhism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in East Asia)'을 주제로 특집 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서평 2편 등이 게재됐다.

이번 저널에 참여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태국 등 다양한 국가의 집필자들은 해당 국가의 역사, 철학, 불교학의 명문인 하버드대·콜롬비아대·브리티시콜럼비아대·도쿄대·북경대·홍콩대 소속 대표연구자로서 국제적 다양성과 학문적 전문성을 갖췄다. 국내에서는 옥스퍼드대 출신의 동국대 교수 카메론 베일리(Cameron Bailey)의 서평이 수록됐다.



특집 논문에 대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700여 년 전 중국에 전래된 이래 동아시아 불교는 역사, 문화, 철학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국가 문화에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면서 "이번 호 특집논문들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와 이웃 종교의 전통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지평을 보다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집논문 외에도 초기 불교의 고(苦, dukkha)의 개념, 菩薩善戒經(보살선계경)에 드러난 바라밀 연구, 힌두교를 버리고 자유와 평등을 설법하는 불교에 귀의하는 개종 운동을 했던 암베드까르를 따르는 참여불교도들의 명상수행, 독특하고 중층적인 시각에서 고찰한 불교의 환경론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또한 근대 대표적인 한국불교저작들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한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전체 시리즈와 티베트 불교 황금기에 대한 최신 저술에 대한 서평이 실렸다.

IJBTC는 한국불교 국제화와 불교학의 학제적 연구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KCI)로 선정됐다. 또한 톰슨로이터사의 새 데이터베이스와 미국신학도서관협회의 아틀라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DB)에도 색인등재 선정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불자 교수들 재가신행지침 제작 나선다

한국불교학회, 8월 16~17일 하계워크숍서 논의

불자 지식인들이 재가불자들의 신행지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오는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동국대 경주캠퍼스 일원에서 2018년도 하계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은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과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으로 나눠 진행한다.

1부인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우리 시대의 불교학'에서는 최근 발간된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대중적으로 주목할 만 한 연구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으로는 '탄허 택성의 사교회통사상 연구(문광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초기 지론학파의 알라야식 개념 연구(이상민, 고려대)',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무이중도 연구(김영미, 동국대 경주캠)'가 소개된다.

2부에서는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을 좌장으로 '재가불자의 신행지침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가불자 신행지침 제작은 김성철 회장의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불교 입문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일상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불자신행 지침서'를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워크숍 토론회를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철 회장은 "한국의 불자 수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재가불자들의 공통된 신행지침이 없다"면서 "동아시아, 남방 상좌부, 티베트 불교권 모두 동의하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가불자의 불교신행 지침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평생의 다섯 단위로 구분해 모색·제안하고 토론하려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⑭ 사형수 김선자

사형수 김선자는 억울하다

사형수 김선자를 아는 이들은 그를 '대한민국 최초 여성 연쇄살인범' '아버지와 친동생을 살해한 희대의 패륜범'으로 기억한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방송서 자주 언급되며 등장하는 김선자. 나는 김 씨만큼 무고하다며 억울해하는 사형수를 지금껏 만난 적이 없다.

1990년도 쯤 서울 구치소를 찾아간 나는 사형 집행이 확정됐다는 한 수감자를 만났다. 김선자였다. 그간 만났던 사형수들은 "잘못은 했지만 사형당할 정도는 아니다" "억울한 나를 좀 살려달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느 때와 같이 교화 법문을 했다. 그런데 김선자는 확연히 다른 태도로 나를 대했다.

나는 김 씨를 만나자마자 사형수에게 주로 하는 〈금강경〉의 마지막 대목을 읊조렸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이란 4구 경구는 실제 사형 집행 현장에서 하는 바로 그 대목이었다. 삶이라는 건 한 마당 꿈이니 죽음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가만히 듣던 김 씨는 엉뚱한 소리를 던졌다.

"저는 곧 나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집에 가요. 좋은 법문 잘 들었습니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김 씨의 말과 웃음은 과장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 명백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순간 나는 '아까 들었던 사형수가 이 사람이 아닌가? 내 눈 앞에 있는 김선자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맞는가'란 물음을 떨칠 수 없었다.

김영삼 前 대통령 정권 말기, 그 때만 해도 사형 구형부터 집행까지 일사천리였다. 바로 내일, 아니 이 자리를 뜨면 집행을 진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사람 같지 않았다.

너무나 황당해 김 씨에게 다시 물었다. 집에 간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묻자, 김 씨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가지요. 난 집행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형 당하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들어주고 나오니 나는 얼이 다 빠지고 말았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교도관에게 김 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교도관은 그가 정신이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으며, 오는 사람마다 한결 같이 오늘과 같은 주장을 고수했다는 답을 할 뿐이었다. 교도관은 "그 여자, 진심이에요"란 말까지 덧붙였다.

여사를 나온 뒤 나는 김 씨의 완강함이 하도 이상해서 그에 대해 알아봤다. 김 씨는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 등을 독살한 혐의로 1988년(49세)에 경찰에 검거됐다. 살인 5건, 살인미수 1건을 저지른 김 씨는 재판 끝에 1989년 사형선고를 받았다.

예상 밖의 태도로 '사형수의 억울함'을 고집하는 김 씨의 이야기에 나는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김 씨가 한 말이 도저히 거짓말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여러 차례 제보한 끝에, 실제로 김 씨에 대한 방송이 전파를 탔다.



검거된 김선자(사진 왼쪽아래)가 나온 뉴스화면 캡쳐.

친부 · 여동생 독살 혐의
사형수로서 집행대기 중
"죄 없어 집에 간다"고 주장

보도, 교정 지시 있었지만
대전 교도소로 이감, 형 집행
여전히 싸이코패스 대명사로

어디까지나 당사자 김 씨와 교도관의 말만 듣고 한 제보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치밀한 탐사취재로 현장서 증거들을 수집했다. 개략적인 문제제기로 시작됐지만 경찰, 재판부 등 각종 관계자들과 만나가며 몇 개월을 고생해 1시간짜리 추적 프로그램이 완성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선자 편이 방영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방송이 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방송은 '사형수 김선자가 억울하다'는 심증적 반증이기도 했다.

억울함은 알려졌지만 풀리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잠깐이었고, 형이 확정된 사형수의 운명은 여전히 집행대기 상태 그대로였다. 고심 끝에 각별한 사이였던 배명인 前 법무부 장관을 만났다. 배 前 장관은 김 씨의 억울함에 대한 내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았다.

이후 대법관 출신 현직 법무부 장관과 식사자리를 마련한 배 前 장관은 김 씨와 방송 이야기를 전했다. 당시 장관은 방송을 보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배 前 장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역시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김 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장관 지시가 교정본부 측에 직접 내려졌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지방법원, 고등법원서 수십 번 재판을 거쳐 이미 대법원 사형 확정이 난 사람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다. 억울한 사형수 김선자는 대전 교도소로 이감됐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송 이후 김선자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것으로 경검찰이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대전교도소로 수감된 이들은 김 씨를 비롯해 대중에게 잊혀졌다.

김 씨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방법은 재심뿐이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형수의 재심 신청은 즉시 기각된다. 사형수의 재심 허용은 전례 없는 일이다. 결국 김 씨는 사형 선고 8년이 지난 1997년 12월 말, 다른 22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처형됐다. 사실상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다.

김 씨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많은 매체들이 김선자를 악독한 사이코패스의 대명사로 끊임없이 이용한다. 텔레비전서 김 씨를 문득 마주할 때마다 영 마음이 편치 않다. 학교를 못 다닌 김 씨는 글을 몰랐다. 사형수 김선자는 그럴만 한 죄를 지은 것이 맞는가. 억울함에 울부짖지 않던 김 씨의 웃음은 잊으려고 해도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⑬ 서옹 스님 · 보문사 보살

스님을 뵙고 말씀을 받들다 보면 '꽃 처방(염화미소)'을 받는다. 음성엔 활기가, 웃음엔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 주인이 되어라. 그러면 서 있는 모든 곳이 참되리라(隨處作主, 立處皆眞).' 고 일러 주고 쥐어 주셨다.

불교의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실이 진리임을 말씀하시곤 일상 속에서의 참선을 노래하듯이 들려주셨다. 그동안 마음의 그네를 타고 곳곳을 둘러보았다. 지금도 비록 천국같이 평화로운 곳에 늘 다리 내리고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달콤 쌉싸름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여기가 내 자리라고 앉아 보고 있다.



"산에서 들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 꽃, 혹시 이름 아시나요?"

살랑이는 바람에 묻는다.

나의 첫 번째 성지순례길에 옆자리에 앉으셨던 보살님이시다. 오고가며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이 날 마음이라는 단어를 선물 받았다. 지금까지 과장도 소홀함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그 보살님도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 살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도 내 속마음의 보폭과 비슷하기를 바란다.

"이 글을 보실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보살님 뵙고 싶습니다. 그날 고맙고 고마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 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황금룡을 집안으로

황룡나한과 복호나한

황룡나한은 용위에 큰복을 실어다 줄 것이며
복호나한은 악귀를 물러치고 삼재를 소멸하여 들어온 복을 지켜 줄 것입니다.

나한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리며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하며, 황금룡을 타고 다니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해 주신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치며 삼재을 소멸하여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어 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8명의 나한들에게 부탁 하시기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줄것을 당부 하였으니 16명의 나한들은 그들의 권속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설파하고 황룡나한과 복호나한은 거처를 정하지 않고 세상을 두루 돌며 중생들에게 복을 전하고 악을 몰아내며 중생들의 수호신이 되고 있다.





- 족자 크기 : 세로 120cm × 가로 54 cm
  족자 1개 금액 : 10만원
  족자 2벌 구입시 19만원에 드립니다.
- 그림 크기 : 세로 67cm × 가로 44 cm
  금액 : 그림당 7만원
- 구 입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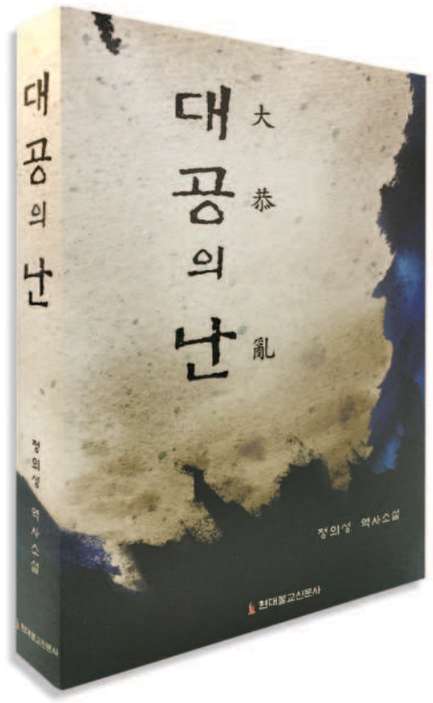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18나한 설명서 를 보내드립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I 신국판 I 704쪽 I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